

I .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오스트리아연방공화국(The Federal Republic of Austria)
면적	83,879 km ² (자료원 : 오스트리아 통계청, 2018 기준)
수도	비엔나(Vienna)
인구	8,795,073 명 (자료원 : 오스트리아 통계청, 2018 기준)
민족(인종)	게르만족
언어	독일어
종교	카톨릭(63.2%), 이슬람(6.2%), 개신교(3.9%), 동방정교회(2.2%), 무교 및 기타(17.2%)
기후	○ 동부: 대륙성 기후 영향으로, 여름은 덥고 겨울에는 눈이 적은 편 ○ 서부: 편현상이 자주 일어나며,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옵니다. ○ 남부: 일조량이 많고, 알프스 영향으로 일교차가 크며 강수량도 많음.
국가원수	대통령: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Alexander van Der Bellen) 총리: 세바스티안 쿠어츠(Sebastian Kurz)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국가정보(일반-국가개요)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892-06-23 (자료원 : 주오스트리아 한국 대사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무역협정	1971-10-30	무역협정	
섬유협정	1979-06-06	섬유협정	
사증면제협정	1979-06-24	사증면제협정	
항공협정	1979-07-03	항공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1987-12-01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1991-03-14	투자보장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	2007-09-15	과학기술협력협정	
사회보장협정	2010-10-05	사회보장협정	
워킹홀리데이	2012-09-17	워킹홀리데이	
산림기술교류협약	2012-10-20	산림기술교류협약 양해 각서 체결	

〈자료원 : 주오스트리아 한국 대사관〉

한국교민 수

2,500 명 (자료원 : 주오스트리아 한국 대사관)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한국 이낙연 총리가 2018년 5월 24일, 25일 이틀 동안 한국 국무총리로서는 14년 만에 오스트리아를 공식 방문했다. 오스트리아 방문 이틀째인 5월 25일 이루어진 공식 일정은 세바스티안 쿠어츠 오스트리아 총리와의 회담, 오찬 및 공동기자회견, 판 데어 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 예방, 아마노 IAEA(국제원자력기구) 및 제르보 CTBTO(포괄적 핵실험금지기구) 사무총장 면담, 국제기구 진출 한국인 직원 간담회, 지상사 및 동포 대표 간담회 등으로 구성됐다.

이 총리는 세바스티안 쿠르츠(Sebastian Kurz) 총리와 회담 및 오찬을 갖고 수교 126년을 맞은 양국간 전통적 우호협력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교역 및 투자 활성화, 과학기술/R&D/중소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양국간 호혜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하반기 EU 의장국인 오스트리아와 한-EU 차원의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어서 이 총리는 5월 25일 오후 알렉산더 판 데어 벨

렌(Alexander Van der Bellen)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관계 평가, 한반도 및 EU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후 이 총리는 유키야 아마노(Yukiya Amano)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라시나 제르보(Lassina Zerbo) 포괄적 핵실험금지기구(CTBTO) 사무총장을 각각 만나, 한반도 비핵화 관련 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

경제

2018년 6월 19일 빈 공대(TU Wien)에서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 현황 및 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오스트리아 그린 에너지 포럼(Austria-Korea Green Energy Forum)'을 개최되었다. 이 포럼에는 '2018 Electrify Europe'에 참여한 한국 기업 13개사 대표와 오스트리아의 신재생 에너지 및 발전분야 기업, 학계 인사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행사를 통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한-오 양국간 경제/무역/투자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는 것과 아울러 5월 말 개최됐던 한-오 총리회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형 산업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

문화

평창동계올림픽(2018. 2.9.~25) 기간 동안 재오스트리아 한인 동포들은 평창 현지에서 한-오 공동응원 활동을 주도했다. 재오 한인 동포 및 오스트리아 주요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응원단은 경기별로 많게는 100여명 이상, 적게는 수십여명이 오스트리아팀이 출전한 경기에서 응원 활동을 전개했는데, 오스트리아 국영방송(ORF)를 포함 오스트리아 및 국내 언론들은 이러한 우리 동포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양국간 상호 이해 및 교류의 좋은 사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



국가정보(일반-한국과의 관계)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경제지표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	0.66	1.14	2.04	2.55	2.73
명목GDP (십억\$)	442.59	382.26	390.96	417.35	459.4
1인당 GDP (PPP, \$)	46,922.48	47,466.59	48,067.36	50,031.03	52,224.5
정부부채 (% of GDP)	83.78	84.35	83.56	78.55	74.24
물가상승률 (%)	1.47	0.81	0.97	2.23	1.96
실업률 (%)	5.62	5.73	6.02	5.53	5.2
수출액 (백만\$)	170,166.63	145,831.37	145,139	160,293.72	177,210.75
수입액 (백만\$)	172,570.17	148,093.91	150,123.05	166,625.93	183,910.01
무역수지 (백만\$)	-2,403.54	-2,262.54	-4,984.05	-6,332.21	-6,699.26
외환 보유고 (백만\$)	14,601.56	13,134.21	13,363.66	10,342.94	12,091.45
이자율 (%)	-	-	-	-	-
환율 (자국통화)	-	-	-	-	-

<자료원 : IMF>

경제 동향

오스트리아 경제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광 등 서비스 산업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 2011년 하반기부터 유럽을 휩쓸고 있는 국가 재정위기 및 이의 확대 우려로 2012년(0.8%), 2013년(0.3%), 2014년(0.4%) 연속으로 소폭 성장에 그쳤으나, 2016년 하반기부터 그 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2017년 이후 3% 가까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내수 부문의 장기 부진 속에 수출 부문이 홀로 경제 성장을 이끄는 외풍이 모습을 보여 오다가 2010년대 들어 수출 부문도 그 성장률이 정체되면서 전체 경제성장률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2016년 시행된 세제 개혁으로 인한 가처분 소득의 증가 효과가 2017년 들어 본격화되면서 수출 부문의 회복세와 함께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경제 전망

○ 2016년 이후 연속으로 2%대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돌입한 오스트리아 경제는, 2018년 그 정점을 찍은 이후 2019년에는 대외 불안 요소의 영향으로 약간의 조정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오스트리아의 실질경제성장률은 2017년(2.6%)보다 높은 3.0%를 기록하면서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9년에는 이보다 낮은 2.0%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 부문 변수들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세계 경제 상황과 이에 따른 국제 교역 규모의 위축이 예상되면서, 수출 주도형인 오스트리아 경제의 상승세가 2019년 들어서는 한 풀 꺾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의 근거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 개발도상국 외환위기 가능성: 미국 연준의 잇따른 금리인상 조치로 신흥국에서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몇몇 국가들에서의 외환 위기 가능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 미국 통상 정책의 불예측성: 보호주의를 앞세운 미국의 대외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중국, EU 등 주요 경제권들과의 통상 분쟁이 그 해결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예측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브렉시트: 브렉시트 시한이 2019년 3월 말로 다가옴에 따라, 어떤 형식의 브렉시트(하드 브렉시트 또는 소프트 브렉시트)가 발생할 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른 모습을 띌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대형 대외 부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수출 주도형 오스트리아 경제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다만, 오스트리아 교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유럽 국가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 지속 추세는 오스트리아 경제에 긍정적 요소로 꾸준히 작용할 전망이다.

○ 세부 부문별 전망

- 실질 GDP 증가율: 2018년 3.0%, 2019년 2.0%
- 수출 증가율: 2018년 5.6%, 2019년 4.5%
- 평균소비(내수) 증가율: 2018년 1.8%, 2019년 1.7%
- 물가상승률: 2018년 2.1%, 2019년 2.1%
- 설비투자 증가율: 2018년 3.4%, 2019년 2.7%
- 실업률: 2018년 4.8%, 2019년 4.5%



국가정보(일반-경제지표)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4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49,508,303,580
2	이탈리아	10,628,118,405
3	미국	9,945,681,697
4	스위스	9,442,810,190
5	프랑스	8,063,657,284
6	체코	5,660,688,095
7	헝가리	5,555,941,626
8	영국	4,955,526,318
9	폴란드	4,935,911,257
10	중화인민공화국	4,393,606,315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42,863,404,323
2	미국	9,647,567,367
3	이탈리아	8,869,387,333
4	스위스	8,362,274,847
5	프랑스	6,349,619,242
6	체코	5,112,347,915
7	헝가리	4,675,738,691
8	폴란드	4,459,632,722
9	영국	4,431,272,799

10	중화인민공화국	3,583,252,283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43,505,236,553
2	미국	9,353,425,916
3	이탈리아	8,984,490,970
4	스위스	8,363,316,094
5	프랑스	5,752,961,242
6	체코	5,161,920,000
7	헝가리	4,727,474,260
8	영국	4,304,617,899
9	폴란드	4,161,604,608
10	중화인민공화국	3,572,259,603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47,526,291,476
2	미국	10,560,650,914
3	이탈리아	9,995,183,534
4	스위스	8,346,370,868
5	프랑스	7,761,541,351
6	체코	5,798,546,005
7	헝가리	5,305,182,759
8	폴란드	4,761,821,032
9	영국	4,180,542,121
10	중화인민공화국	4,071,389,993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4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63,413,577,706
2	이탈리아	10,507,705,812
3	중화인민공화국	9,625,626,149
4	스위스	9,078,874,727
5	체코	7,170,039,104
6	미국	5,782,270,835
7	헝가리	5,062,340,704
8	프랑스	4,733,513,500
9	네덜란드	4,550,837,051
10	슬로바키아	3,798,281,456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53,770,448,058
2	이탈리아	8,923,632,655
3	중화인민공화국	8,756,280,015
4	스위스	8,582,907,106
5	체코	6,176,737,716
6	미국	5,766,516,646
7	Special Categories	4,186,245,979
8	프랑스	3,936,534,757
9	네덜란드	3,872,219,951
10	헝가리	3,827,891,819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55,258,735,966
2	이탈리아	9,142,014,784
3	중화인민공화국	8,779,584,820
4	스위스	8,139,306,032

5	체코	6,481,184,490
6	미국	5,473,207,565
7	프랑스	4,004,206,667
8	헝가리	3,893,438,755
9	네덜란드	3,835,931,558
10	Special Categories	3,746,250,641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60,827,236,438
2	이탈리아	10,130,777,878
3	중화인민공화국	9,526,904,208
4	스위스	8,983,569,816
5	체코	7,152,186,402
6	미국	6,486,764,181
7	Special Categories	4,608,659,892
8	네덜란드	4,558,955,098
9	헝가리	4,466,331,203
10	프랑스	4,408,280,202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최근 5년)

2014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5,651,039,008
2	300490	기타	3,038,110,849
3	840820	제87류의 차량추진용 엔진	2,849,247,146
4	300210	면역혈청과 기타 혈액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얻어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391,355,476

5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1,911,270,065
6	870899	기타	1,888,794,270
7	840734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1,771,964,762
8	293719	기타	1,764,846,216
9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1,727,092,746
10	300439	기타	1,703,802,243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4,638,006,066
2	840820	제87류의 차량 추진용 엔진	2,533,418,311
3	300490	기타	2,462,774,118
4	300210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인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 없다)	2,349,324,552
5	870899	기타	1,823,753,786
6	840734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1,623,172,504
7	220210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1,524,922,620
8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458,117,736
9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	1,447,437,556
10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2,500시시 이하인 것	1,421,862,306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4,621,406,042
2	840820	제87류의 차량 추진용 엔진	2,577,176,179
3	300210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인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 없다)	2,487,446,225
4	300490	기타	2,472,761,798

5	300439	기타	1,788,153,839
6	840734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1,660,088,176
7	220210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1,636,522,293
8	870899	기타	1,538,547,683
9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2,500시시 이하인 것	1,248,306,950
10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1,192,115,706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5,258,925,782
2	300490	기타	2,720,139,620
3	840820	제87류의 차량 추진용 엔진	2,371,491,070
4	300212	-	2,076,464,181
5	840734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1,948,644,353
6	293719	기타	1,919,351,883
7	220210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1,854,246,402
8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	1,707,468,684
9	300439	기타	1,692,293,556
10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2,500시시 이하인 것	1,531,371,000

〈자료원 : UN Comtrade〉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최근 5년)

2014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한다)	5,971,036,452
2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4,569,156,033
3	271121	천연가스	3,442,475,890
4	293719	기타	3,196,949,898

5	300490	기타	3,182,758,412
6	27102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서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2,792,255,648
7	851712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921,895,904
8	271019	기타	1,852,708,442
9	300210	면역혈청과 기타 혈액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얻어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596,469,738
10	870899	기타	1,492,888,503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cc를 초과하고 2,500cc 이하인 것	4,116,774,642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3,435,278,732
3	293719	기타	3,199,588,924
4	271121	천연가스	2,996,060,643
5	300490	기타	2,624,491,094
6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908,330,406
7	27102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서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1,651,623,629
8	300210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 없다)	1,610,451,133
9	870899	기타	1,380,517,961
10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1,290,967,762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	---------	-----	--------

1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2,500시시 이하인 것	4,727,099,292
2	293719	기타	3,096,516,689
3	300490	기타	2,631,113,917
4	271121	천연가스	2,580,720,102
5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410,120,018
6	300210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인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 없다)	1,987,838,937
7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751,320,006
8	27102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서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1,681,674,457
9	870899	기타	1,317,641,983
10	840991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것	1,158,387,340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2,500시시 이하인 것	4,593,397,716
2	293719	기타	3,727,016,719
3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3,046,250,460
4	271121	천연가스	2,941,659,790
5	300490	기타	2,622,595,726
6	27102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서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1,830,034,630
7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628,298,623
8	300212	-	1,469,368,741
9	271019	기타	1,398,739,909
10	870829	기타	1,347,490,394



국가정보(무역-수출입)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4	938	1,344	-406
2015	882	1,177	-295
2016	840	1,092	-252
2017	959	1,615	-656
2018	917	1,582	-665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7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8311	집적회로반도체	242	18	223
2	8352	축전기	70	1	68
3	7420	자동차부품	102	93	8
4	7411	승용차	81	388	-307
5	8132	보조기억장치	87	0	86
6	8126	레이더및항행용무선기기	40	1	38
7	8138	전산기록매체	16	0	15
8	8147	의료용전자기기	38	13	24
9	7414	전기자동차	19	0	18
10	8223	카스테레오	0	0	0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8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	-------------	-----	------	------	------

1	8311	집적회로반도체	190	12	178
2	8352	축전지	85	1	84
3	7420	자동차부품	80	62	18
4	7411	승용차	76	501	-425
5	8132	보조기억장치	61	0	61
6	8126	레이더및항행용무선기기	49	6	43
7	8138	전산기록매체	40	0	40
8	8147	의료용전자기기	35	12	23
9	7414	전기자동차	27	0	27
10	8223	카스테레오	27	0	27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7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81	388	-307
2	2262	의약품	5	57	-53
3	7412	화물자동차	1	69	-69
4	7420	자동차부품	102	93	8
5	0221	가축육류	0	66	-67
6	7111	원동기	1	26	-25
7	7112	펌프	1	26	-26
8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7	32	-26
9	7121	운반하역기계	1	8	-8
10	4121	비스코스섬유	0	38	-38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8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76	501	-425
2	2262	의약품	11	71	-60
3	7412	화물자동차	0	63	-63
4	7420	자동차부품	80	62	18

5	0221	가축육류	0	50	-50
6	7111	원동기	1	30	-29
7	7112	펌프	1	30	-29
8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2	30	-28
9	7121	운반하역기계	0	27	-27
10	4121	비스코스섬유	0	26	-26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국가정보(무역-한국과의 수출입)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FTA(Free Trade Agreement)	대한민국	2010-10-06	2015-12-13	2011.7.1 잠정 발효 및 2015.12.13 전체 발효
FTA(Free Trade Agreement)	싱가포르	2018-10-19		비준 진행 중(2019년 발효 전 망)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일본	2018-07-17	2019-02-01	2018.12월 양측 의회 비준 완 료 2019.2.1 발효 전망
FTA(Free Trade Agreement)	베트남	2018-10-19		비준 진행 중(2019년 말 또는 2020년 초 발효 전망)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알바니아	2006-06-12	2009-04-01	
AA(Association Agreement)	알제리	2002-04-22	2005-09-01	
CU(Customs Union)	안도라	1990-06-28	1991-01-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08-06-16	2015-06-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2016-06-10	2016-10-10	잠정발효(남아공, 보츠와나, 레 소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모 잠비크(2018.2.4)) EPA는 기존의 TDCA(Trade, Development and Co- operation Agreement)협정을 대체
AA(Association Agreement)	이집트	2001-06-25	2004-06-01	
AA(Association Agreement)	조지아	2014-06-27	2016-07-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아이슬란드	1992-05-02	1994-01-01	
A(Agreement)	페로 제도	1996-12-06	1997-01-01	
AA(Association Agreement)	이스라엘	1995-11-20	2000-06-01	
AA(Association Agreement)	요르단	1997-11-24	2002-05-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코소보	2015-10-22	2016-04-01	
AA(Association Agreement)	레바논	2002-06-17	2006-04-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마케도니아	2001-04-09	2004-04-01	
AA(Association Agreement)	몰도바	2014-06-27	2016-07-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몬테네그로	2007-10-15	2010-05-01	
AA(Association Agreement)	모로코	1996-02-26	2000-03-01	2013.3.1 DCFTA 추진 위한 업데이트 협상 개시, 2014.4월 부로 보류 *DCFTA :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EAA(Economic Area Agreement)	노르웨이	1992-05-02	1994-01-01	
IAA(Interim Association Agreement)	팔레스타인	1997-02-24	1997-07-01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러시아		1997-12-01	2008년 PCA 대체하는 RCA 협상 개시, 2010년 RCA 협상 중단
CU(Customs Union)	산 마리노	1991-12-16	2002-04-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세르비아	2008-04-29	2013-09-01	
A(Agreement)	스위스	1972-07-22	1973-01-01	
CA(Co-operation Agreement)	시리아	1977-01-01		잠정 중단
CU(Customs Union)	터키	1995-01-01	1995-12-3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카리포룸(CARIFORUM)	2008-10-15	2008-12-29	잠정 발효(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그라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도미니카 공화국,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PCA(Updat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르메니아	1996-04-22	2018-06-01	잠정 발효
IE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카메룬	2009-01-15	2014-01-01	잠정 발효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캐나다	2016-10-30	2017-09-21	잠정 발효

EPA(Stepping ston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코트디부아르	2016-07-28	2016-09-03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동남아프리카(Eastern and Southern Africa)	2009-08-29	2012-05-14	잠정 발효(마다가스카, 모리셔스, 세이셸, 짐바브웨)
PDCA(Political Dialogue and Cooperation Agreement)	쿠바	2016-12-12	2017-11-01	잠정 발효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피지	2009-07-13	2014-07-28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가나	2016-07-28	2016-12-15	잠정 발효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이라크	2012-05-01	2012-08-01	잠정 발효
EPCA(Enhanc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카자흐스탄	2015-10-26	2016-05-01	잠정 발효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파푸아뉴기니	2009-07-30	2011-05-01	
DCFTAA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Association Agreement)	우크라이나	2014-05-29	2016-01-01	잠정 발효
TA(Trade Agreement)	안데스공동체(Andean Community)	2012-07-26		잠정 발효 콜롬비아(2013.8.1), 페루(2013.3.1), 에콰도르(2017.1.1)
AA(Association Agreement with a strong trade component)	중앙아메리카(central america)	2012-06-29		잠정 발효 온두라스, 니카과라, 파나마(2013.8.1)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2013.10.1) 과테말라(2013.12.1)

〈자료원 : EU 집행위〉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미국	협상 잠정보류. 직전 협상 : 2016년 10월	

FTA(Free Trade Agreement)	ASEAN	2009.3월, 다자간 협상 잠정 중단 합의 2009.12월, EU- ASEAN 개별회 원국 간 양자협정 추진계획 발표 양자협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협정 가능성 타진 중	
FTA(Free Trade Agreement)	말레이시아	협상 잠정보류, 직전 협상 : 2012년 4월	
FTA(Free Trade Agreement)	태국	협상 중단. 직전 협상 : 2014년 4월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네시아	협상 중, 직전 협상 : 2018년 10월	
FTA(Free Trade Agreement)	필리핀	협상 중, 직전 협상 : 2017년 2월	
IPA(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미얀마	협상 중, 직전 협상 : 2016년 12월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	협상 잠정보류. 직전 협상 : 2013년	
FTA(Free Trade Agreement)	메르코수르 (MERCOSUR)	2018.4.2. 무역부분 업그레이드 협정 원칙적합의(Agreement in principle) 도달	
GA(Global Agreement)	멕시코	업그레이드 FTA 협상 타결 (2018.4.21)	기존 협정 발효일 : 2000.10.1
FTA(Free Trade Agreement)	호주	협상 중, 직전 협상: 2018년 7월	
FTA(Free Trade Agreement)	뉴질랜드	협상 중, 직전 협상: 2018년 7월	
EU-China investment agreement	중국	협상 중. 협상 개시 : 2013년 11월	
Update of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제르바이잔	협상 개시 : 2017.2월	
AAAP(Association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칠레	무역부분 현대화 추진 중(협상 개 시 : 2017.11.16.)	기존 협정 발효일 : 2005.3.1
Update of AA(Association Agreement)	튀니지	DCFTA 추진 위한 업데이트(협상 개시 : 2013.10.12) *DCFTA :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기존 협정 발효일 : 1998.3.1

〈자료원 : EU 집행위〉



국가정보(무역-무역협정)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
용 할 수 있습니다.

4.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1	72~73류 일부	철강제품(Steel Products)	세이프가드(조사중)	2018-03-26
2	481190, 480990, 481690, 482390	경량감열지(Lightweight thermal paper)	반덤핑(규제중)	2016-02-18
3	722511, 722611	전기강판(GOES: Grain-oriented flat 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	반덤핑(규제중)	2014-08-14
4	731210.0	철강 로프 및 케이블(Steel Ropes and Cables)(우회덤핑).	반덤핑(규제중)	2009-08-12
5	280469.0	실리콘 메탈(Silicon metal) (우회덤핑)	반덤핑(규제중)	2006-04-20
6	730793, 730799	철강제 관연결구류(tube and pipe fitting of iron or steel)	반덤핑(규제중)	2001-06-01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수입금지품목

EU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동물 실험 화장품, 불법 벌채 목제품 등이 있다. 이 외에도 EU는 현재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고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2015년 9월, 유럽의회는 물개제품에 대한 교역 금지를 강화한다는 집행위 제안을 압도적 표결(찬성 631표, 반대 31표, 기권 33표)로 채택했다. 이전까지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물개 잡이를 금지하고 물개고기에 관련된 제품 수입을 금지했었으나, 어족자원 보존을 위한 물개 잡이와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생활방식 유지를 위한 물개 잡이만 허용해왔었다. 2014년 6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에 대해 명확히 하라는 WTO의 요청에 따라, EU 집행위는 2015년 2월 물개 관련 제품의 수입교역 금지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물개잡이 역시 금지한다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다만, 원주민의 전통생활 방식에 따른 비상업적 목적의 물개잡이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은 정부가 자국제품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지칭하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인증제도와 TBT를 들 수 있다.

인증의 경우, 산업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요구하는 인증이 가장 많으며 기계 및 자동차에 대한 인증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례로 굴삭기, 휠로더, 스kid로더와 같은 건설 중장비의 경우, 기본적인 CE 인증 외에도 EU 각 회원국들이 각각 다른 국내 도로 인증

(Road Homologation)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중고장비의 수입제한을 목적으로 CE 마크와 적합성 인증서 외에 별도의 Newness Certificate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기계의 경우 한국 인증기관이 아닌 유럽의 주요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CE 마크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현지 A/S 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EU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CE 인증, REACH, CPNP 등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CE 마크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불어표기인 'conformite europeenne'의 머리글자를 딴 마크로 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이다. CE 마크는 인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고 원산지를 명시하지 않으며, 다만 생산 과정이 EU의 요구기준에 맞춰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마크는 1993년 7월 22일 도입된 인증으로 EU 지침 93/68/EEC를 통해 시행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CE 마크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압기기, 의료기기, 선박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매우 광범위한 공산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 CE 마크 부착

- CE 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해야 한다.
- CE 마크는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CE 마크는 읽기가 용이해야 하고 견고하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돼야 한다. 제품 특성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이 가능하다.
- 만약, 필요에 의해 통지 기관이 검사를 실시할 경우, 통지 기관 인식번호 역시 CE 마크에 추가적으로 표시가 돼야 한다. 이 인식번호 표시에 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다.

2) RoHS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RoHS는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equipment의 약자로, 전기전자제품 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RoHS 지침 2011/65/EU 지침에 따라, 아래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 납: 0.1%
- 수은: 0.1%
- 육가크롬: 0.1%
- 폴리브롬화바이페닐: 0.1%
-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0.1%
- 카드뮴: 0.01%
-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 0.1% -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3) REACH -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

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의 약자로 EU내 연간 1톤 이상(3년 동안의 평균값) 제조 혹은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완제품(Article)에서 의도적 (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 등록 대상

- 연간 1톤 이상 EU에서 생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substance)
- 2개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preparation)의 경우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 의도적으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제품(article)의 경우(화학물질이 배출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

학물질

- 고분자의 경우 단량체가 2중량%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해당 단량체, 또는 첨가제의 총량이 2중량%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해당 첨가제

- 연 1톤 미만 제조/수입자, 대리인, 하위사용자, 물질정보를 보유한 제3자도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참여를 위해 사전등록 가능

○ 신고대상

- 완제품에서 고위험성 물질이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중량% 이상 및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 완제품에서 고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인배출(Unintended release)에 해당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중량% 이상이고 그 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 제품 및 공정중심 연구개발을 위한 물질도 화학물질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5년간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 물질 등록 절차

- 신청 및 제출: 화학물질 D/B 시스템 IUCLID(The 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내 물질 등록 및 관련 서류 제출

· 등록사항: 물질정보(화학물질번호, 물질명 등), 기업명 및 담당자, 수입량, 물리학적 특성, 독성정보 등과 함께 기술서류(Technical Dossier), 화학물질 안전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도 제출

· IUCLID 해당 홈페이지: <http://iuclid.eu>

- 평가: 서류검증 및 질적검사

· 물질 등록 서류 제출 후, 서류검증 시스템을 통해 자동검증이 시행되나 이는 모든 요구사항이 등재되었는지의 파악을 위한 단순체크에 불과하다. ECHA는 등록된 물질정보를 토대로 회원국들과 협의해 물질별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질적검사를 통해 등록신청 물질의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 질적평가에서 거부당하는 경우 1회에 걸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2번 이상 거부되는 경우에는 사전등록 절차부터 다시 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ECHA 지원센터 연락처: +358-9-686180(헬싱키)

- 등록비용 지불 및 승인번호 부여: 승인결정 후 등록비를 지불하면 해당 물질의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물질 등록일은 해당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날짜로 지정된다.

- 등록물질 공표: ECHA는 등록 완료된 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 공식 웹사이트(www.echa.europa.eu)에 공표한다.

4) CPNP(화장품 인증)

화장품을 EU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지정 및 유럽 화장품 인증이라 불리는 CPNP(The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화장품 제품 관련 규제는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내에서 규제되고 있다. 규정적용은 2013년 7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2018년 12월 기준 아직까지도 국내업체들 중에 CPNP에 대해 모르는 업체들이 상당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역외 기업이 EU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역내 법적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수입자가 제품의 책임자가 되며, 역외로부터의 수입제품이 EU 현지 브랜드 또는 역내 유통사 이름으로 시장에 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통사가 책임자가 된다. 참고로 지정된 책임자는 제품 시장출시 전, EU 집행위 사전신고를 비롯해 불량제품 발생 시 시장철수 및 리콜 등 규정이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책임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국내 업체의 경우, 역내 책임자(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이 대행업체로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공하면 되는데, 필요서류로는 ISO 인증서 사본, 제품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분석증명서(CoA; Certificate of Analysis) 등이 있다.

CPNP 인증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KOTRA 뉴스를 참고할 수 있겠다.

- CPNP 정보 링크 :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69902&pageViewType=&column=title&search=cpnp&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searchIndustryCatel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

5) e-Mark

EU 자동차 분야 승인제도로써 유럽연합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검사 제도이다.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Declaration of Conformity) CE Marking과 달리, EU 각국의 교통관리부 등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후 EU 인증기관인 교통관리부로부터 반드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시험 소요기간은 완성차의 경우 1~2개월이 일반적으로 소요되며, 부품류의 경우 대부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EMC는 시험에 1~2일이 소요되고 강화유리의 경우 10일 정도 소요된다). 또한, 시험이 완료된 후 일반적으로 2주 이내에는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E-Mark 옆에 붙는 숫자는 EU-28개국별로 달라지며 국가마다 별도의 코드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별 코드는 아래와 같다.

- 1: 독일, 2: 프랑스, 3: 이탈리아, 4: 네덜란드, 5: 스웨덴, 6: 벨기에, 7: 헝가리, 8: 체코, 9: 스페인, 11: 영국, 12: 오스트리아, 13: 룩셈부르크, 17: 핀란드, 18: 덴마크, 19: 루마니아, 20: 폴란드, 21: 포르투갈, 23: 그리스, 24: 아일랜드, 26: 슬로베니아, 27: 슬로바키아, 29: 에스토니아, 32: 라트비아, 24: 불가리아, 36: 리투아니아, 49: 사이프러스, 50: 몰타

TBT

현재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Technical Barrier to Trade)으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유럽 내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규제를 지속 심화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EU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1) 장난감 내 화학성분 기준 강화

2017년 5월 24일, EU 집행위는 ‘장난감 안전지침 2009/48/EC’ 내 비스페놀A(이하 BPA)의 이행기준치(migration limit)를 기존의 0.1mg/l에서 0.04mg/l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해당 지침 부속서2의 부록C에 수정 기재되며 2018년 11월 2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U의 이와 같은 장난감 안전지침 개정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EU는 지난 3월 27일 납(lead) 제한 기준 강화, 5월 4일 페놀(Phenol) 제한 기준 추가 등 장난감 성분에 대한 규제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 신 장난감 안전지침 역대 개정 내역

- 2012년 3월 22일 Cadmium 허용치 조정
- 2013년 7월 17일 Barium 허용치 조정
- 2014년 6월 20일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TCEP, TCPP, TDCP 함량 제한
- 2014년 6월 23일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BPA 이행 제한 - 2015년 6월 30일 Nickel 허용 품목 조정

○ 신 장난감 안전지침의 개정 공표 내역

- 2017년 3월 27일 Lead 허용치 조정(EU 이사회, 2017/738)
- 2017년 5월 4일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Phenol 제한(EU 이사회, 2017/774)
- 2017년 5월 24일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BPA 허용치 조정(EU 집행위, 2017/898)

2) 플라스틱 식품용기 내 비스페놀 A 사용제한 강화

2018년 2월 14일, EU 집행위는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용기 내 비스페놀 A 함유량을 제한한다는 집행위 규정 No.2018/213을 채택했다. 비스페놀 A(이하 BPA)는 플라스틱 물질제조에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로 캔음료, 생수통, 밀폐용기, 영수증 용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다. 최근 유럽 내 BPA 위해성이 집중 조명되고 있으며, 유럽식품안전청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2006년부터 식품용기에 들어가는 비스페놀A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위해성에 대해 지속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에서도 물질사용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데, 집행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11년부터 영·유아용 젖병 내 BPA 사용을 금지했으며, 플라스틱 식품용기에는 일정 제한치(0.6mg/kg)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벨기에 정부의 경우,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식품 용기 내 BPA 사용을 금하고 있다.

유럽물질화학청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는 2017년 6월, BPA 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REACH 고위험성물질목록(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에 등재시켰다. 집행위는 내부적 분석을 통해 플라스틱 식품용기 내 BPA 물질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 최대 허용기준을 0.6mg/kg에서 0.05mg/kg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통조림 제품의 경우, 제품 내벽의 부식방지를 위해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BPA가 들어가므로, BPA 제한용량(0.05mg/kg)을 니스 및 코팅제로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니스 및 코팅제가 들어간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적합성 선언문(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선언문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명시되어야 하며, 회원국 당국의 요청 시 기업은 10일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조 및 적합성 선언 기업정보(기업명 및 주소)
- 적합성 선언 작성 시기
- 제조 시, EU 규정 No.1935/2004 내 3,15,17 조항의 준수 여부
-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 제품 정보(식품군 종류, 식품처리에 사용되는 온도, 기간 등) 및 제조품 정보

이 밖에도, 집행위는 3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소량의 BPA 노출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병과 컵에 BPA 사용을 금지시킨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된 집행위 규정에 따라,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용기 내 BPA 0.05mg/kg를 초과하는 제품과 BPA가 함유된 영·유아용 물병 및 컵은 역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는 바, 관련 기업들은 규정을 숙지하고 변경된 기준에 맞춰 제품을 생산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유럽의회는 관련 제조기업들이 BPA 대체 물질로 비스페놀S(BPS)의 사용 가능성을 제시하며 BPS에 대한 위해성 역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 Risk Assessment Committee) 역시, BPS는 BPA와 유사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제조기업의 BPS 사용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향후 EU 내 BPA 물질 금지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BPS 물질 제한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돼 우리기업의 예의주시가 요구된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오스트리아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공통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EU-28국 내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관리 등 세관행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세법령은 1992년 제정된 유럽 공동체 관세법(CCC; Community Customs Code)이다. 2000년대 들어 EU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이를 둘러싼 세관행정 환경에 변화가 일자, 2008년 6월 EU는 세관 현대화 법(MCC; Modernised Customs Code)이라는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해 발표시켰다. 이후, 2013년 10월 기존 세관 현대화 법(MCC)을 보완한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을 마련하고 2016년 6월 1일부로 적용중에 있다. 새로운 관세법은 세부적 실행규정 제정권이 EU 집행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조사, 벌금 등은 회원국 세관당국의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EU는 일반적으로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관세는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해 각 회원국 세관당국이 징수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1) 관세율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OJEU)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 가격의 변화에 대해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선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존재한다. 이 밖에도,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인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 부과금(Import Levy)을 부여한다. EU는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해 EU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품목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들 품목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

관세율은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협정특혜세율, 개도국에 적용되는 GSP 세율, 그리고 기타 3국에 적용되는 일반관세율로 구분될 수 있다.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는 해당 협정에 규정된 협정세율이 적용되며, 일례로 한국산 제품의 경우 한-EU FTA에 의거해 0% 무관세로 수출된다. GSP의 경우,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로 일반 GSP, GSP+, EBA로 나뉜다.

- 일반 GSP : 전체 상품분류 중에서 2/3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완전한 관세감축 혜택을 제공한다.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대상국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 GSP+ :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 완전무관세라는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에 부여중이며, 대상국 명단은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 EBA(Everything but Arm) :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유럽연합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의 적용 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공여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2) 관세 부과 가액

EU 내 수입되는 상품의 실질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상이)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또한 특별세의 세율도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2018년 12월 10일 기준, 적용되고 있는 국별 VAT 요율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할 수 있다.

- 링크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taxation/files/resources/documents/taxation/vat/how_vat_works/rates/vat_rates_en.pdf

관세율 알아보는 법

아래의 EU 집행위 'Taric' 사이트 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럽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집행위 관세율 확인 관련 링크: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Taric=&EndPub=&MeasText=&Area=&Regulation=&LangDescr=&callbackuri=CBU-0&MeasType=&SimDate=20150610&StartPub=&OrderNum=&GoodsText=&Level=&Expand=false

이 사이트를 클릭 후 상품 HS Code(Goods code)와 상품의 원산지 국명(Country of origin)을 입력하면 품목별 관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외 특정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율 역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여타국과의 EU 수입관세를 비교해볼 수 있다.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약식 통관

오스트리아에서 약식통관은 샘플 등을 수입할 때 이용되며, 원산지 증명서 등이 필요하지 않고 선하증권(BL) 혹은 항공화물운송장(AWB) 및 상업송장(인보이스, Commercial Invoice)만 준비하면 된다.

2) 정식 통관

정식통관은 오스트리아에 수출입하는 회사들이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거칠 때 이용되는 방법이며, 통관을 위한 구비서류로 일반적으로는 선하증권, 인보이스,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 등이 있으며 특수한 품목 같은 경우(가스 등)등은 특정 라이선스가 요구될 수 있다.

3) 우편 통관

모든 국제우편물은 관세법과 국제협약에 의하여 세관의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는 관세 등의 조세확보와 국민건강보호를 위해서이다. 따라서 일부 국제우편물은 오스트리아 내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구비서류는 '국제우편물 통관 신청서'안에 보내는 품목의 금액(Value)과 종류, 보내는 목적 등을 기입해야 한다.

4) 일괄 통관

화물이 판매 완료되기 전에 오스트리아 항구에 도착한 경우 구매자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컨테이너를 일괄 통관한 후 창고에 보관이 가능한데, 화물을 보세상태로 보관하다가 출고하는 경우 매번 발생하는 수입통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다만 VAT를 물류업체가 대납하거나 한국업체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재정적 부담감이 있고, 납부한 VAT는 보통 4~5개월 이내에 환급이 가능하다.

5) 보세 통관

보세 운송(T1 혹은 Transit document)은 수입통관 완료 전에, 화물이 이동될 때 보세 운송서류(T1)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데 이 서류는 오스트리아 이외 EU 국으로 배송시 수화인이 해당국에서 직접 수입통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이 밖에도 화물의 오스트리아 항구 도착 이후 수입통관이 바로 진행되지 않고 보세창고로 운반될 경우에 창고까지 운송을 위해 발행하기도 한다.

보세운송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등이며 오스트리아 이외 EU국으로 배송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에서 통관 예정인 통관사무실의 주소가 필요하다. 보세 운송서류의 유효기간은 보통 7일 정도로, 해당국 도착 이후 유효기간 내에 수입통관이 반드시 진행돼 보세 운송서류가 수입통관서류로 대체되어야 한다. 만일 보세 운송서류로 운송된 화물이 수입통관 유효기간 내에 통관이 되지 않는 경우, 다른 보세창고에 보관을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책이 될 수 있다.

해당국 도착 시 지정된 통관사무소에서 통관이 완료된 후에 최종 목적지로 배송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관절차 완료를 위해서 트럭은 중간경유(Multi-stop)를 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이 약 70유로가 든다. 또한 관세 및 부과세는 통관과 동시에 즉시 납부해야 한다.

보세보관(IMAJ 혹은 In Bond Document)은 화주가 화물에 대해 수입통관을 하지 않은 채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하는 서류로, 위 서류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유효기간은 무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수입통관 완료 전까지는 부가세의 납부 의무가 연기 된다.

6) 중앙집중식 통관(2020년부터 시행 예정)

2020년 3~10월부터 EU는 중앙집중 통관방식을 신규 도입해 수입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통관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EU 영토 최초 반입지에서 수입통관이 진행되고, 만일 수입신고자가 위치한 타 세관사무소에서 통관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으로 통관이 진행돼 왔는데 이 경우, 보세운송 관련 별도의 서류발급 및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번거로움이 존재했었다. 2020년부터 시행될 중앙집중식 통관(Centralised Clearance)에 따라, 수입품이 수입신고자와 다른 장소에 있어도 신고자가 귀속되어 있는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게 된다.

통관 시 유의사항

1)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오스트리아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혜택,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한-EU FTA로 인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한 한국기업은 EU 수출시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6,000 유로 이하 수출시, 수출자 스스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만 원산지 증명서의 자유발급이 가능해진다. 인증수출자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인데,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 기존의 인증번호를 사용해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게 되면 사후 적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권리 확대

EU는 2016년 6월부터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권리를 확대해 간편하고 신속한 수출입 절차를 통해 통관진행 용이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AEO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EU 수입통관시 일반적인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대신 전자시스템 상에 내용을 기입할 수 있으며, 관세조사 및 물품 검사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 면제를 받게 된다. 또한, 자율심사(Self-assessment)로 수입 관세가격 자율 결정 권한 및 일부 세관통제의 이행이 가능해진다.

AEO 자격은 아래와 같이 3개의 인증 형태로 구성되며, 1개 회원국 내 인증 획득 시 전체 EU에서 통용된다.

- 세관간소(Customs simplification) 인증 : 간소화된 절차 혜택 부여
- 안전(Security and safety) 인증 : 안전과 관련된 절차 혜택 부여
- 세관간소 + 안전 인증 : 상기 두 개 인증을 합친 것

AEO 인증은 세관당국에서 심사를 거친 후 자격이 수여되며, 자격획득 요건으로는 범죄 무기록 보유자, 재무건전성, 조세 등 경제활동에서의 위반행위가 없었어야 한다. 특히, 세관간소 인증의 경우에는 세관수행 활동에 관련된 전문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안전 인증의 경우에는 제품의 수출입 공급망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기준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Albatros Logistic Service(한국 업체)

주소	Flughafen Wien-Schwechat, Air Cargo Center Building 262/11/A02.033, 1300 Wien-Flughafen
전화번호	+43-1-7007-38416
이메일	office@albatros-logistics.net
홈페이지	http://www.albatros-logistics.net

◦ Rail Cargo Logistics(한국인 직원)

주소	Am Hauptbahnhof 2, 1100 Wien
전화번호	+43-5-7750 2
이메일	office.rcl@railcargo.com
홈페이지	http://www.railcargologistics.com

◦ Cargp Partner(한국인 직원)

주소	PO Box 1, Airportstrasse, 2401 Fischamend
전화번호	+43-5-9888 11316
이메일	atfis@cargo-partner.com
홈페이지	http://www.cargo-partner.com

◦ Maurice Ward Logistics(한국인 직원)

주소	Object 263, Zimmer 02/211-212, Tuer 2.
전화번호	+43-1-7007 32282
이메일	vienna@mauriceward.com
홈페이지	http://www.mauriceward.com

◦ PNL VIE(한국업체)

주소	Objekt 262, Stiege 7, Raum A02.095 1300 Wien-Flughafen
전화번호	+43-1-9007 34381
이메일	lswsaru@pnlinternational.co.kr
홈페이지	http://www.pnli.co.kr

〈자료원 : 오스트리아 관세청〉



국가정보(무역-통관 및 운송)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오스트리아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이나 인센티브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스트리아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외국 기업의 경우 회사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 투자에 따른 정부 보조금 및 인센티브 등에서 오스트리아 기업과 동일한 적용을 받고 있다.

투자인센티브

1) 지역별 투자 인센티브

○ 대상

- 경쟁력 제고 및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구조 개선 분야
- 지역 경제의 성장 및 고용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
- 지역 간의 경제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분야
- 오스트리아 내 또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근 국가(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의 지역간 경제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

○ 종류

- 저리 융자(ERP Fund, 다양한 지방 자치 단체의 Funding Programs)
- 정부 보조금(Austria Wirtschaftsservice, EFRE)
- 지급 보증(Austria Wirtschaftsservice, 지방 자치 단체의 개별 지급 보증 프로그램)

○ 지원한도

- 중소기업: 투자금액의 15% + Bonus
- 부르겐란트, 발트피어텔(Waldviertel), 바인피어텔(Weinviertel) 지역 투자 중소기업 : 투자금액의 20% + Bonus

2) 중소기업(SME) 투자 인센티브

○ 대상

- 중소기업의 품질 개선 분야 투자
-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 도입 관련 투자

○ 종류

- 저리 융자(ERP Fund, 다양한 지방 자치 단체의 Funding Programs)
- 정부 보조금(Austria Wirtschaftsservice, ERDF)
- 지급 보증(Austria Wirtschaftsservice, 지방 자치 단체의 개별 지급 보증 프로그램)

○ 지원 한도

- 소기업 : 투자 금액의 15%

- 중기업 : 투자 금액의 7.5%

3) R&D 투자(기술 개발) 관련 인센티브

○ 대상

- 상품화 가능(관련 Risk 포함)한 기술 혁신 관련 R&D 투자

○ 종류

- 저리 융자(Austrian Research Promotion Agency; FFG, ERP Fund)
- 정부 보조금(Austrian Research Promotion Agency; FFG, 개별 지방 자치 단체)
- 지급 보증(Austrian Research Promotion Agency; FFG)

○ 지원 한도

- 산업용 R&D: 투자 금액의 50%
- 실험용 투자(Pre-market Research): 투자 금액의 25%

4) 환경 보호와 관련한 투자

○ 대상

- 공기 정화
- 폐수 및 하수 처리
- 재생 에너지
- 에너지 효율 증진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 종류

- 연방 정부 보조금

○ 지원 한도

- 기존의 환경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의 환경보호(중소기업만 해당됨): 투자금액의 15%
- 규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환경 보호 관련 투자: 투자 금액의 30%
-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과 관련한 기술 투자: 투자 금액의 40%

제한 및 금지(업종)

오스트리아는 거의 전 산업 분야(99.7%)에 걸쳐 외국인 투자가 개방되어 있다. 금지 대상 종목은 환경오염 산업, 국가 독점 사업 등 극히 일부분이다. TV 무선 방송은 2002년부터 자유화되었다.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유럽연합국과 금지 대상을 통일할 예정이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오스트리아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이나 인센티브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스트리아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외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특별경제구역이나 자유무역지대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산업단지

◦ Industriezentrum Noe-Sued

규모	280ha
위치	Strasse 3, ECO Plus-Buerogebaede Postfach 70, A-2355 Wiener Neudorf, Austria
임차료	◦ 공장 : 월 4.20유로/㎡ ◦ 사무실 : 월 8.50유로/㎡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 +43-2742-9000 19600 ◦ 이메일 : fragen@ecoplus.at ◦ 홈페이지 : www.ecoplus.at

<자료원 : 오스트리아 경제부>

주요 지역별 여건

◦ 빈(Wien)

- 중심 도시 : 빈
- 면적 : 415㎢
- 인구 : 1,888,776명
- 근로자 연평균 임금(세전) : 31,110유로
- 주(州) 1인당 GDP : 44,700유로
- 1인당 가처분 소득(구매력) : 21,500유로
- 사무실 평균 임차료(중심 도시 기준) : 월 19.85유로/㎡
- 특징 : 오스트리아의 수도로 다수의 국제 기구 및 다국적 기업의 현지 법인이 위치해 있음. 숙련된 노동력을 구하기 쉽고, 제반 인프라가 가장 발달되어 있는 곳이지만, 상대적으로 물가 수준 및 인건비 수준이 높음.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스라바와의 쌍둥이 도시(Twin City) 계획, 동구권 국가들에 근접한 지정학적 위치 등의 장점이 있는 지역

◦ 니더외스터라이히(Niedersterreich)

- 중심 도시 : 상트 팰턴
- 면적 : 19,186㎢
- 인구 : 1,670,668명
- 근로자 연평균 임금(세전) : 32,649유로
- 주(州) 1인당 GDP : 30,400유로
- 1인당 가처분 소득(구매력) : 22,800유로
- 사무실 평균 임차료(중심 도시 기준) : 월 8.48유로/㎡
- 특징 : 오버외스터라이히 주와 함께 기계 및 자동차 공업 관련 업체들이 많은 지역으로 수도 빈에서 가까운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입지하기에 좋은 지역 중 하나

◦ 오버외스터라이히(Obersterreich)

- 중심도시 : 린츠
- 면적 : 11,980㎢
- 인구 : 1,473,576명
- 근로자 연평균 임금(세전) : 30,693유로
- 주(州) 1인당 GDP : 37,800유로
- 1인당 가처분 소득(구매력) : 22,100유로
- 사무실 평균 임차료(중심 도시 기준) : 월 10.36유로/㎡
- 특징 : 오스트리아 제1의 공업 도시 린츠가 위치한 지역으로, 각종 기계 및 자동차 공업 관련 업체들이 모여있는 곳임. 세계적인 철강 기업 Voest Alpine사도 이 지역에 있음.

◦ 포랄베르크(Vorarlberg)

- 중심 도시 : 브레겐즈
- 면적 : 2,601㎢

- 인구 : 391,741명
- 근로자 연평균 임금(세전) : 29,584유로
- 주(州) 1인당 GDP : 41,100유로
- 1인당 가처분 소득(구매력) : 22,700유로
- 사무실 평균 임차료(중심 도시 기준) : 월 10.31유로/m²
- 특징 : 스위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 특성상 물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산악 지역이라는 특성상 공업보다는 관광업이 발달해 있는 지역.
- 주요 기업 : Blum Gruppe, Zumtobel, Liebherr Werk Nenzing, Doppelmayr, Wolford, Rauch Fruchtsfte

○ 슈타이어막(Steiermark)

- 중심 도시 : 그라쯔
- 면적 : 16,401km²
- 인구 : 1,240,214명
- 근로자 연평균 임금(세전) : 29,057유로
- 주(州) 1인당 GDP : 33,000유로
- 1인당 가처분 소득(구매력) : 21,500유로
- 사무실 평균 임차료(중심 도시 기준) : 월 10.55유로/m²
- 특징 : 오스트리아 남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온천 및 휴양 시설들로 더욱 유명한 지역. 자동차 및 의료 장비 관련 업체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곳.
- 주요 기업 : Andritz, Voestalpine Metal Engineering Division, Magna Steyr, Roth Gruppe, AVL List, Magna Powertrain, Sappi Austria, AT&S, JCL Logistics, Mayr-Melnhof Karton

○ 티롤(Tirol)

- 중심 도시 : 인스부르크
- 면적 : 12,640km²
- 인구 : 751,140명
- 근로자 연평균 임금(세전) : 26,975유로
- 주(州) 1인당 GDP : 40,200유로
- 1인당 가처분 소득(구매력) : 21,400유로
- 사무실 평균 임차료(중심 도시 기준) : 월 10.91유로/m²
- 특징 : 산악 지역이라는 특성상 스키 등의 관광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2차 산업 등의 발달은 미미한 지역
- 주요 기업 : Adolf Darbo, Swarovski, GE Jenbacher, Plansee SE, Riedel Tiroler Glashuette, Sandoz, Swarco Holding, Fritz Egger, Theoni Industriebetriebe

○ 케른텐(Krntner)

- 중심 도시 : 클라겐푸르트
- 면적 : 9,538km²
- 인구 : 560,898명
- 근로자 연평균 임금(세전) : 29,019유로
- 주(州) 1인당 GDP : 31,600유로
- 1인당 가처분 소득(구매력) : 21,100유로
- 사무실 평균 임차료(중심 도시 기준) : 월 8.89유로/m²
- 특징 : 이탈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관광지로서 더 유명한 지역. 제조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2004년 9월까지 한국의 기아 자동차가 클라겐푸르트에서 현지 법인을 운영했었음(현재는 수도 빈에 있음).
- 주요 기업 : Infineon Technologies, Flextronics, Treibacher Industrie, Mondi Frantschach, Kioto Clear Energy, Bosch Mahle Turbo Systems

○ 부르겐란트(Burgenland)

- 중심 도시 : 아이젠슈타트
- 면적 : 3,962km²
- 인구 : 292,675명
- 근로자 연평균 임금(세전) : 30,866유로
- 주(州) 1인당 GDP : 25,700유로
- 1인당 가처분 소득(구매력) : 21,800유로
- 사무실 평균 임차료(중심 도시 기준) : 월 9.08유로/m²
- 특징 : 농업 등 1차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곳으로, 2차 산업의 발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함.

○ 잘츠부르크(Salzburg)

- 중심 도시 : 잘츠부르크
- 면적 : 7,156km²
- 인구 : 552,579명
- 근로자 연평균 임금(세전) : 28,492유로
- 주(州) 1인당 GDP : 44,800유로
- 1인당 가처분 소득(구매력) : 22,400유로
- 사무실 평균 임차료(중심 도시 기준) : 월 12.23유로/m²
- 특징 : 모차르트가 태어난 곳인 잘츠부르크는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으나, 독일 뮌헨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기계 공업 관련 업체들도 많은 지역



국가정보(투자-투자환경)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3	2014	2015	2016	2017
5,719.91	4,577.23	1,269.88	-9,000.76	9,629.65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3	2014	2015	2016	2017
15,567.76	-725.72	6,980.47	-3,519.78	10,892.07

<자료원 : UNCTAD Stat>



국가정보(투자-외국인직접투자)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4	9	5	4,723	10	4,732
2015	7	0	77,799	6	40,894
2016	8	3	5,908	10	5,537
2017	5	1	48,763	6	37,862
2018	14	4	1,337,598	15	1,254,441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2014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3	3	1,533	3	1,533
도매 및 소매업	6	2	3,190	7	3,199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5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2	0	73,893	1	36,988
도매 및 소매업	5	0	3,906	5	3,906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6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	------	-------	------	------	------

제조업	5	2	1,398	7	1,027
도매 및 소매업	2	0	4,433	2	4,433
운수 및 창고업	1	1	77	1	77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7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1	0	35,454	3	35,181
도매 및 소매업	2	0	3,637	2	2,589
운수 및 창고업	1	1	90	1	92
부동산업	1	0	9,582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8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7	2	1,286,834	9	1,205,471
도매 및 소매업	3	0	3,487	2	3,475
정보통신업	2	1	6	2	6
부동산업	2	1	47,271	2	45,489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Kumho Tire Europe

진출년도	2003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차량용타이어
모기업명	금호타이어

◦ Kia Motors Austria

진출년도	1995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모기업명	기아자동차

◦ Korean Air

진출년도	2004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운송/물류
취급분야	항공물류운송
모기업명	대한항공

◦ Samsung Electronics Austria

진출년도	198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전기/전자
모기업명	삼성전자

◦ Asiana Airlines

진출년도	2004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운송/물류
취급분야	항공물류운송
모기업명	아시아나 항공 카고

◦ LG Electronics

진출년도	1987
진출형태	지점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전기/전자
모기업명	LG 전자

◦ Glovis

진출년도	2011
진출형태	지점
업종	운송/물류
취급분야	물류서비스
모기업명	글로벌리스

◦ People and Logistics

진출년도	2012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운송/물류
취급분야	물류서비스
모기업명	PNL

◦ Woojin Plaimm

진출년도	2014
진출형태	연구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기계제조
모기업명	우진플라임

◦ Miwon Austria

진출년도	2014
진출형태	연구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화학
모기업명	미원스페셜티케미(주)

◦ Samsung SDI Battery Systems

진출년도	201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전기/전자
모기업명	삼성 SDI

◦ Postec

진출년도	2016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전기/전자
모기업명	포스텍 전자(주)

◦ KCP

진출년도	201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건설장비
모기업명	케이씨피중공(주)

〈자료원 : KOTRA 빈 무역관〉



국가정보(투자-한국기업 투자)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법인은 독립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고 제3자에 대한 기업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유한회사(GmbH), 주식회사(AG) 등을 설립할 경우, 출자금액 안에서만 제한적인 책임을 진다. 오스트리아에는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의 기업이 오스트리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할 경우 오스트리아 회사와 동일하게 관련 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지 법인 형태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2가지 형태가 있는데, 오스트리아에 진출하는 외국 회사의 경우 대부분(80% 이상)이 유한회사(GmbH) 형태로 현지 법인을 설립한다.

주식회사(AG)보다 유한회사가 선호되는 이유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갖는 법적 지위와 대우가 거의 동등한 반면 주식회사 설립이 유한회사 설립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 설립 후 곧바로 주식 시장에 상장할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굳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한회사 형태가 선호되고 있다.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회는 특수한 경우에만 필요한 기구이며 통상적으로 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또한 이사회 구성이 필요한 경우에 법인은 외부감사를 1인 이상 선임해야 한다. 법인세 과세 범위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해당한다.

지사

본사가 오스트리아에 소재하지 않는 외국 법인(유한회사, 주식회사)은 오스트리아 내에 지점을 설립할 수 있다. 지점은 독립적인 법 인격을 가지지 않으며, 본사인 외국 법인이 오스트리아 관할 법원 등기소에 회사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본사가 EEC 지역 이외에 소재하는 외국 법인은 1인 이상의 지점 대표를 임명하여야 한다.

- 동 대표는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임기는 지점의 존속 기간 동안이다.
- 동 대표는 지점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 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대표하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지점의 경영과 관련한 대표 범위는 제한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의 공동 대표 임명도 가능하다.
- 본사가 EEC 지역에 소재하는 외국 법인의 경우 지점 대표를 임명할 수 있으나, 의무 사항은 아니다.

회사 등록 신청시 본사인 외국 법인의 정관 사본을 공증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반드시 독일어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설립에 따른 법정 최소 자본금은 없으나, 자본금을 납입하였을 경우 납입 자본금의 1%인 자본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독립적인 별도의 상업 장부를 작성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관할 법원 등기소에 설립 신청한 후 회사 명부를 발급받기까지 통상적으로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연락사무소

현지 법인 설립을 원하지 않을 경우, 외국 법인들이 지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형태로 오스트리아 내에서 영리 활동을 수행할 수 없으며 최소 자본금 등이 필요 없는 형태이다. 공식적인 설립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하루 안에 모든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락사무소에서는 통상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지만,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본사와 연결시켜서 연락사무소 자체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연락사무소라 하더라도 오스트리아 내에서의 업무 기록과 금전 관련 증빙 자료를 포함하는 완전한 회계 기록을 보관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관할 법원 등기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설립 절차

- 설립 요건 : 본사가 오스트리아에 소재하지 않는 외국 법인
- 설립 결의 : 본사 연락사무소 설립 결의, 연락사무소 대표 임명(연락사무소 대표는 반드시 오스트리아 거주자이어야 함)
- 사무실 임대차 계약
- 구비 서류 : 연락사무소 등록 신청서, 본사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공증 필, 독일어 번역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관할 법원 등기소에 설립 신청 및 등록 : 1~2일 소요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함께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법인 형태로, 근거 법령은 1965년에 제정된 주식회사법(AktG)이다.

유한회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회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은 7만 유로이다. 설립 신청시 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 주주들의 이름을 회사 명부에 기재할 필요가 업으나, 1인 주주인 경우 주주의 이름 및 주소를 회사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주식회사도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관할 법원 등기소에 회사 등록 절차를 거쳐 회사 명부(Fiemenbuch)에 등록됨으로써 그 설립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등록 절차 및 필요 서류 등은 유한회사와 유사하다. 대표이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가 필수 기관이며 이사회 구성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데, 임기는 최대 5년까지이다.

주식의 양도가 자유롭고 추후 상장 등의 절차가 예상되는 바, 재무 보고 및 공시와 관련한 규정들이 까다롭게 적용된다. 결산과 관련한 재무제표는 '독립적인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9개월 내에 관할 법원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주식회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비엔나에서 발행되는 일간 신문 중 한 곳에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유한책임회사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설립된 회사 형태로, 1906년 제정된 유한회사법 (GmbHG)이 그 근거 법령으로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범위는 자본금 납입으로 한정된다.

유한회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최소 발기 인원수는 2인 이상이며, 전문 변호사들이 일단 발기인으로 등록하고 회사 설립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퇴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유한회사는 관할 법원 등기소에 회사 등록 절차를 거쳐 회사 명부(Fiemenbuch)에 등록됨으로써 그 설립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회사 등록 신청서는 모든 사원들이 서명한 후 공증을 거쳐야 한다. 등록 신청시 필수 서류 중의 하나인 정관은 최소 2인 이상의 발기인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공증을 받아야 한다. 1인 유한회사의 경우 정관 대신 공증을 받은 설립 의향서(Erklärung über die Errichtung der Gesellschaft)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한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은 3만 5천 유로이며, 사원의 지분은 최소 70유로 이상이어야 한다. 설립 자본금의 현물 출자도 가능하나 최소 50% 이상은 현금으로 납입되어야 하며, 현물 출자가 50%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설립 감사(Gründungsprüfung)를 받아야 한다. 회사 설립 단계에서는 일단 최소 자본금의 50%인 1만 7500 유로를 은행에 예치한 증명이 있으면 된다. 단,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 동안 개정/시행되었던 관련 규정(최소자본금 1만 유로)과의 절충안으로 법인 설립시 1만 유로의 50%인 5천 유로의 현금 예치 증명만 있으면 일단 법인 설립(소위 GmbH Light)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5천 유로로 유한회사를 창업한 기업주들에게는 별도의 의무와 제약 사항이 따른다. 회사 설립 후 10년 내에 현금 납입액의 차이인 1만 2500유로를 완납할 의무가 주어지는데, 우선적으로 매년 영업 이익의 25%가 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모자라는 부분은 주주의 현금 납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밖에 이들 '자본금 완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한회사와 '정상적'인 유한회사와의 구별을 통해 채권자 및 비즈니스 상대방의 혼란을 방지

하려는 취지로, 5천 유로로 시작한 유한회사는 자본금 완납(1만 7500유로)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사명에 단순한 ‘GmbH’가 아닌 ‘GmbH gründungsprivilegiert’라는 명칭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10년 내에 1만 2500유로의 부족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11년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파산 절차에 돌입할 것이 의무화된 바,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청산 절차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주가 무한책임을 지는 개인회사로 전환해야 한다.

개인 또는 법인, 내국인 또는 외국인 여부를 불문하고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으며, 반드시 오스트리아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필요는 없다.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은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2000년 10월 1일부터 동 지분 양도에 따른 자본거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 설립 절차
 - 설립 요건 : 최소 2인 이상 발기인, 정관 작성, 자본금 결정(최소 자본금 35,000유로), 최소 자본금의 50% 이상 은행 예치
 - 사무실 임대차 계약
 - 자본거래세 납부 : 설립 자본금의 1%
 - 구비 서류 : 법인 설립 등록 신청서, 정관(공증 필), 사원들이 결의한 이사 임명안(공증 필), Managing Director 샘플 서명(공증 필), 자본거래세 납부 영수증, 자본금 은행 예치 증명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관할 법원 등기소에 설립 신청 및 회사 명부 발급 : 1~2주 소요

개인사업자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오스트리아 국민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Einzelunternehmer)로 등록하여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개인사업자는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유한회사의 사원 등과는 달리 본인의 자산으로 사업체의 부채에 대한 무한책임 의무를 지게 된다. 개인 사업자는 사업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보통 연 매출액이 40만 유로 이상일 때) 상업 등기소에 등록을 해야 한다.

실제로 외국인이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여 지속적인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달리, 개인 사업자의 경우 외국인이 체제 허가(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으로, 사업자 등록이 체제 허가 취득을 보장해 주는 전제 조건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지만, 개인 사업자 등록을 통해 체제 허가를 받는 것이 고용주와의 고용 계약(취업)을 통해 노동 허가 및 체제 허가를 취득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행히 체제 허가를 취득했다고 할지라도, 명문화된 규정은 아니지만 체제 허가 갱신(보통 1년 단위)시 일정 규모 이상의 신고 매출액 등 갱신을 위해 지켜야 할 '암묵적'인 기준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투자진출 방법은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 zeiler.partners Rechtsanwälte

전화번호	+43-1-890 1087-73
주소	Stubenbastei 2, 1010 Wien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권인화 변호사(Kwon, Innhwa)

비고	홈페이지: https://www.zeiler.partners 이메일: innhwa.kwon@zeiler.partners 중대형 법무법인으로, 한국 변호사인 권인화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	---

◦ Benn-Ibler Rechtsanwälte

전화번호	+43-1-531 55-0
주소	Palais Ephrussi, Universitätsring 14, 1010 Wien
홈페이지	http://www.benn-ibler.com
이메일	suzy.park@benn-ibler.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박수지 변호사(Park, Suzy)
비고	중대형 법무법인으로, 한국인 교포 2세 변호사인 박수지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 Herbst Kinsky Rechtsanwälte

전화번호	+43-1-904 2180-0
주소	Dr. Karl Lueger-Platz 5, 1010 Wien
홈페이지	http://www.herbstkinsky.at
이메일	florian.steinhardt@herbstkinsky.at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중대형 법무법인으로서, 담당자인 Mr. Florian Steinhardt 변호사가 법인 설립 등에 경험이 많다.

◦ DSC, Rechtsanwalt Partnerschaft

전화번호	+43-1-319 4520
주소	Whringer StraBe 2-4, 1090 Wien
홈페이지	http://www.dsc.at
이메일	office@dsc.at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중대형 법무법인으로서, 한국 삼성전자의 오스트리아 자회사 설립에 관여한 바 있다.

◦ Wolf Theiss Partner

전화번호	+43-1-515 10
주소	Schubertring 6, 1010 Wien
홈페이지	http://www.wtp.at

이메일	wien@wolftheiss.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대형 법무법인으로서, 동유럽 지역에 여러 곳의 지사를 두고 있는 국제적 규모의 큰 회사로 아시아 지역 회사들과의 비즈니스 경험을 가지고 있다.

◦ ECOVIS Scholler & Partner Wirtschaftstreuhand GmbH, Steuerberatungsgesellschaft

전화번호	+43-1-599 22-26
주소	Schmalzhofgasse 4, 1060 Wien
홈페이지	http://www.ecovis.at
이메일	wien@ecovis.at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비엔나 등 오스트리아 네 곳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중견 회계법인으로, 60여 명의 전문 인력들이 회계 및 세무 서비스, 관련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Grant Thornton Unitreu

전화번호	+43-1-262 62
주소	Handelskai 92/Gate 2/Top 7A, 1200 Wien
홈페이지	http://www.grantthornton.at
이메일	office@at.gt.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2010년 11월 Grant Thornton과 Unitreu의 합병으로 탄생한 150명 규모의 대형 회계법인이다. 다국적 대형 업체인 Grant Thornton International의 파트너 업체로서, 회계 및 세무 서비스, 감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내에 세 곳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자료원 : KOTRA 빈 무역관〉



국가정보(투자-투자진출방식)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 청산 절차

청산 절차를 통해 회사를 철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 계약, 특히 고용 계약과 관련하여 큰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노조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청산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노조측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일정 수 이상의 실업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AMS(Arbeitsmarktservice)에 반드시 사전 통보해야만 한다.

주주들이 회사를 청산하기로 결의한 이후 청산인을 임명하고, 임명된 청산인은 청산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회사의 청산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공개해야만 한다. 모든 부채의 변제가 끝난 후 남은 잔여 자산은 주주들에게 분배된다. 자산이 남아있지 않은 회사의 경우 별도의 청산 절차 없이 회사 등록부(Firmenbuch)에서 말소될 수 있다.

청산 과정에서 자산의 매각으로 발생한 자본 이득(Capital gain)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다. 청산 수익과 주당 투자액과의 차액 또한 주주들이 납세 의무를 지는 항목이다. 다만, 청산 수익 분배에 대한 원천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회사가 채권자들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부채의 일부만을 변제하게 되었을 경우, 채권자의 권리 포기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부분도 과세 대상이다. 이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부분도 다시 계산하여 세무 당국에 정산하여야 한다.

◦ 청산 관련 비용

청산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법인등기부 삭제비용(18~36유로)이며, 나머지는 절차 수행에 따르는 변호사 비용 등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사무실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 부분으로, 계약서에 계약 해지 관련 내용에 명기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서에 따라 해지하면 된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최소 1년 임대기간이 경과했다는 전제 아래 일반 주택의 경우 3개월, 상가 및 점포의 경우 6~9개월 법적으로 사전고지 의무가 있다.



국가정보(투자-청산 및 철수)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0.8803유로(2018년 12월 기준)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2,850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2,650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11.46
비고	오스트리아는 최저임금을 규정한 법이 없고, 산별 노사협약에 의해 산업별로 월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이를 평균하면 월 1,500유로 수준이다.				

<자료원 : Pederson & Partners>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1) 고용 계약

사용자와 피고용자 간의 인터뷰 후 고용 계약서를 작성한다. 사용자는 고용 사실이 확정된 후 이를 해당 사회 보험 회사에 통고하여야 한다. 업체별로 견습 기간(최고 1개월)을 거쳐 정식 사원이 된다. 수습 기간이라도 사회보험 회사에 통보가 필요하다. 수습 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사전 고지 기간 의무 없이 쌍방 중 일방이 단독으로 고용 계약 해지가 가능한데, 수습 기간 최고 1개월의 근거는 오스트리아 민법(ABGB) 및 사무직 노동자법(AngG)이다.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산업별로 노조와 사용자 단체간의 단체 협약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른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관련 샘플은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에서 조회 가능하다.

-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 : <https://www.wko.at/Content.Node/Service/Arbeitsrecht-und-Sozialrecht/Vertragsmuster/Vertragsmuster-Startseite.html>

한 예로, 서비스 업종(단체 협약에서 제외된 업종) 표준 계약서의 경우 포함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계약주체, 퇴직연금, 근로개시(수습기간 관련 내용 포함), 근로 영역, 근로 장소, 근로 시간, 급여, 휴가 등

2) 상여금

○ 사무직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법(Angestellten Gesetz, 약어 AngG, 제국법발포지 1921년 292호) 제 16조에 의거 사무직 근로자는 특수 수당 형태의 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동 법은 상여금의 수준을 기본급의 최소 100%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으며, 오스트리아 사무직 노조 연맹 및 공무원 노조에서 체결한 단체 협약에서는 1년에 월 기본급 200% 이상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오스트리아 대법원 판례도 기본급 200%의 상여금을 관행으로 인정하고 있다.

○ 생산직 근로자

생산직 근로자들에 상여금을 규정한 노동 법규는 없으며, 오스트리아 노동법 제12조 1항에 의거하여 오스트리아의 모든 생산직 근로자들은 오스트리아 노총 산하 산별 노조들이 체결한 단체 협약의 혜택을 받는다. 사용자와 산별 노조간에 체결되어 있는 단체 협약에서 생산직 근로자는 1년에 월 기본급의 200% 이상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 지급 시기

상여금 지급 시기는 단체 협약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회사별로 차이가 많다. 공무원들과 사무직 근로자들은 대부분 매 분기 마지막 달에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받는다. 일부 회사는 휴가비와 크리스마스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여름과 겨울에 각각 100%씩 두 번 지급하기도 한다.

3) 외국인 고용 관련

외국인 고용에 대한 특별한 제약을 규정한 법률은 없으나, 모든 외국인들은 노동 허가를 취득하여야만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최근 내국인 실업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를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여서 노동 허가 취득이 힘들며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997년부터는 일정한 노동허가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반사무직이나 일반 생산직에 대한 쿼터는 없고, 간부급 사원이나 특수숙련공에 대해서만 일부 쿼터가 있다. 모든 자격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쿼터가 이미 채워진 경우에는 노동허가 발급이 거부된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인력 부족 산업 부문 및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캐나다의 이민점수 제도를 본떠 RWR(Rot-Weiss-Rot) 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노동 및 체제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인데 기존 시스템의 쿼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해당 노동 비자 발급과 관련한 통합 포털 사이트인 www.migration.gv.at 를 오픈해 운영하고 있는데, 독일어 및 영어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 곳을 통해 자신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고 몇 점을 취득할 수 있는지 사전에 조회해볼 수 있다.

근로시간

근로 시간은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이 원칙이나, 단체 협약을 통해 조정 가능한데 현재 오스트리아에서는 주당 38시간 근로가 일반적이다. 이 경우에도 하루 12시간, 주당 6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과거에는 하루 10시간, 주당 50시간이었으나 2018.9.1.부터 관련법이 개정되어 변경된 근로시간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근로자들은 주당 1회, 최소 연속 36시간 이상의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일반 급여의 최소 50% 이상을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여성 근로자의 야간 근무는 2002년 이후로 허용되었다.

휴가

오스트리아 근로자들은 1년에 최소 5주의 유급 휴가를 갖는다. 한 업체에서 2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동 기간은 최대 6주까지이다.

출산과 관련하여, 여성은 출산 예정일 전후 8주씩 총 16주의 유급 출산 휴가를 가질 수 있다. 육아와 관련하여 최대 30개월(부모가 번갈아 사용한 경우 최대 36개월)의 육아 휴직을 가질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오스트리아 사회보험조합으로부터 월 430유로 정도의 육아 보조금(Kinderbetreuungsgeld)가 지급된다.

근로자들은 1년에 최소 6주에서 최대 12주까지 유급(급여 전액) 병가를 가질 수 있으며, 급여의 반을 지급받는 반 유급 병가를 추가로 4주 신청할 수 있다.

해고

고용 계약은 상호 합의, 계약기간 종료, 사직/해고 등의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근로자에 의한 갑작스런 사직, 고용주에 의한 해고의 경우 적절한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일반적인 사직의 경우 특별한 사유는 필요치 않으나, 단체 협약상에 명시된 의무 고지 기간을 지켜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직일 최소 한 달 전에 회사측에 고지하여야 한다.

퇴직금

과거(2003년 이전)에는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법 규정은 없었으나, 산업별 단체 협약(KV)에 의거 통상 3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근속 연수에 따라 최소 2개월~최대 1년치의 급여가 지급되었다.

하지만, 법제화된 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조가 활성화되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정부는 2003년 관련법을 신설하여 고용주들이 의무적으로 월 급여의 1.53%를 퇴직적립금으로 펀드에 가입하도록 법제화시켰다.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기업(고용주)이 급여의 3.70%, 종업원이 급여의 3.70%를 각각 부담하며, 종업원 부담분을 회사가 원천징수해 회사 부담분과 함께 해당 기관(수도 비엔나의 경우 비엔나 의료보험공단(WGKK))에 납부한다.

고용보험

기업(고용주)이 급여의 3.0%, 종업원이 급여의 3.0%를 각각 부담하며, 종업원 부담분을 회사가 원천징수해 회사 부담분과 함께 해당 기관(수도 비엔나의 경우 비엔나 의료보험공단(WGKK))에 납부한다.

산재보험

급여의 1.40%를 회사가 부담하며, 해당 기관(수도 비엔나의 경우 비엔나 의료보험공단(WGKK))에 납부한다.

국민연금

1) 가입 의무자

- 소득이 월 333.16유로 이상인 사무직 근로자와 임금 노동자
- 직업 훈련자
-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영자
- 사업자 등록증 없이 사업을 하는 자로, 연간소득이 6,453유로(부업인 경우 3,713유로) 이상인 사람
- 용역 계약자로 월 소득이 333.16유로 이상인 사람(자유 직업자로 간주함)
- 오스트리아에 주소가 있는 가정주부, 저소득 근로자는 신청 시 연금 가입 가능
- 기타 15세 이후의 학교 교육 기간, 군복무 기간, 출산, 상병, 실업수당 수급 기간 및 자녀 양육 기간(최대 48개월)도 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된다.

2) 연금 급여의 종류, 지급액 등

- 노령 연금: 65세(여자 60세) 도달자로서 최종 30년 중 가입 기간이 180개월 이상이거나 가입 기간이 300개월 이상이거나 또는 보험료 납부 기간이 180개월 이상인 경우 노령 연금의 대상자가 된다. 가입 기간이 45년(여자 40년) 이상인 61.5세(여자 56.5세) 도달자로 소득이 월 333.16 유로 이하이고 일정 요건 해당자는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장애 연금: 교육 수준이 비슷한 가입자에 비해 소득능력을 50% 이상 상실한 자로서, 최종 10년(50세 이후의 1개월당 2개월 추가) 중 보험료 납부 기간이 60개월 이상(50세 이후의 1개월당 1개월 추가), 가입 기간이 300개월 이상 또는 보험료 납부 기간이 180개월 이상인 경우(57세 이상자에게는 수급 요건이 완화됨) 장애 연금의 대상자가 된다. 장애연금 중 부분 연금은 소득이 월 958.3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부분 연금을 지급한다.

- 유족 연금: 사망한 가입자가 사망 당시 장애 연금의 수급을 위한 가입 기간이나 보험료 납부 기간 요건을 충족했거나 연금 수급자였던 경우

3) 연금 청구기관: 오스트리아 연금 공단(www.pensionsversicherung.at)



국가정보(투자-노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7. 세금

가. 조세제도

법인세

오스트리아의 회사법은 한국의 회사법과는 달리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법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법인세가 부과되는 회사는 유한회사(GmbH)와 주식회사(AG)뿐이다.

기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 이득은 영업 이득으로 과세된다. 법인세율은 25% 정액 세율이 적용되는데, EU 평균 23.5%보다 높은 수준으로 특히 인근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 바 오스트리아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지속적인 인하 압력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정부는 2020년 시행을 목표로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12.5%로 낮추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소득세

개인에 대한 소득은 종합 개인 소득세를 기준으로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2015년 5월에 확정된 조세 개혁안의 시행으로 인해 2016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바뀐 개인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연말 정산의 경우 연말에 가족현황, 의료비 등의 지출을 감안한 소득세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에 따른 소득세 공제액을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연간 소득이 1만 1000유로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면제되는데, 연간 소득에 따른 기준 세율은 다음과 같다.

- 11,000유로 이하 : 0%
- 11,001~18,000유로 : 25%
- 18,001~31,000유로 : 35%
- 31,001~60,000유로 : 42%
- 60,001~90,000유로 : 48%
- 90,001~1,000,000유로 : 50%
- 1,000,000유로 초과 : 55%(연대세율(Solidaritätssteuersatz)로, 2016년부터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동 세금으로 확보된 세금은 오스트리아 R&D 및 교육 펀드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가가치세

오스트리아의 부가가치세율은 공산품 20%, 식품품 10%인데,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20% : 기본세율(일반 재화 및 서비스)
- 13% : 숙박업, 살아있는 동식물/종자, 문화 서비스(연극, 공연, 영화 티켓 등), 사료, 목재, 항공 티켓, 박물관, 사우나/온천, 동물원 입장료 등(2016.1.1. 신규 시행).
- 10% : 식품, 농수산물, 주거용 건물 임대, 승객 운송, 의약품
- 0% : 수출품 및 수출입과 관련한 일부 서비스
- 부가세 면세 사업자 : 은행 및 보험업, 부동산 임대(주거용 건물 임대 제외), 병원, 의사, 치과 의사

특별소비세

오스트리아에서 생산되거나 오스트리아로 수입되는 석유 및 석유제품(유류세), 담배(담배세) 등에 부과된다. 특별 소비세는 제품의 단위당 고정 금액으로 과세되며, 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부과된다. 담배의 경우는 고정금액과 더불어 판매가격의 일정 비율도 과세되고 있다.

기타

○ 부동산 관련

- 부동산 취득 시 등록세 : 거래가액의 1 %
-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 거래가액 0~250,000유로: 거래가액의 0.5 %
 - 거래가액 250,001~400,000유로: 거래가액의 2.0 %
 - 거래가액 400,000유로 초과: 거래가액의 3.5 %
-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의 30 %

○ 재산세는 1994년 폐지되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는 2008년 8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



국가정보(투자-세금)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8.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1991년 말부터 외환 거래가 완전 자유화되었으며, 따라서 내국인의 외국 은행 구좌 운용, 국내 기업의 외국환 표시 채권 발행 등이 자유화되었다.

외환 규제

1) 개요

외환 관리는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에서 집행하나 경상 거래, 자본 거래 등이 모두 자유화되었다. 1만 4500유로 이상의 외환 거래의 경우에는 실명을 밝혀야 한다. 오스트리아의 외환관리는 유럽연합 협약과 오스트리아 통화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상당히 유연한 통화관리 법규를 적용하고 있다. 자본 이동의 자유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와 다른 국가들간의 지불 및 자본 이동 등에 있어 법률적 제한은 없다.

외국 회사는 오스트리아 자본 시장에 아무런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다. 물론 일부 외국환 거래는 오스트리아 중앙은행(OeNB)에 보고가 되지만, 대부분 통계를 위한 목적이다.

2) 과실송금

외환 거래의 자유화로 투자 자금에 대한 과실 송금에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 자금에 대한 특별 우대 조치는 없지만 국내 기업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며, 경제적 후진 지역이나 특별 산업 진흥이 필요한 부문에 지원되는 혜택을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



국가정보(투자-외환)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Ⅳ.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오스트리아는 중부 유럽의 중심 국가로서 오랫동안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 있었으며, 예술과 학문이 고도로 발달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1인당 GDP는 4만 1970유로(2017년 기준)로 EU 내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사회 보장 제도가 잘 완비되어 있는 관계로(오스트리아의 사회보장부문 지출은 GDP의 30.1%로 EU 27개국 중 6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수준. EU 평균 29.4%) 노후 걱정이 없어서 저축보다는 소비 성향이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일본, 싱가포르 등이 약 30% 수준의 저축률을 보이는데 반하여 오스트리아의 저축률은 6.5%(2017년 기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스트리아인들은 높은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1인당 평균 구매력(가처분소득)은 2016년 2만 2200유로로 전년 대비 0.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니더외스터라이히주가 2만 2800유로로 가장 높은 구매력을 지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원 : 오스트리아 통계청>

소비 성향

1) 개요

오스트리아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가격/품질의 정도를 잘 고려하며, 2000년대 들어 환경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에너지 및 자원 절약형, recycling 가능 여부 등이 제품 구매 시 점차 많은 비중을 차지해 가고 있다. 일반 소비재의 경우 7~8월과 2월경의 할인 판매 기간을 많이 이용하여 구매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외에도 특별 할인 품목 등 저렴한 제품을 선호한다. 내구재의 구입에 있어서는 품질과 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여가 시간의 증가 및 건강 의식의 증대로 레저, 스포츠에 대한 소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분야의 대표적인 품목은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오토바이 등이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에서는 여권 신장, 나아가서는 남녀 평등이 제도화되어 마케팅적 관점에서는 여성 용품의 소비 기반이 강하며, 여성의 직장 근무가 일반화됨에 따라 각종 편의용품 및 레저, 스포츠용품 등의 수요 기반도 견고하다.

2) 품질 및 가격

오스트리아 시장에서는 물량으로 밀어붙이기 식의 전략은 통하지 않으며 가격과 품질의 상관 관계가 가장 중시된다. 부연하자면 가격 대비 품질의 우수성, 품질 대비 가격의 저렴함이 가장 우선적인 구매 포인트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오스트리아에 대한 수출은 반드시 A/S가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스트리아 내에 브랜드를 정착시키고 있는 외국 유명사의 경우 오스트리아 전역에 걸친 부품 교환소 및 고객 상담실 설치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3) 구매 시즌

오스트리아는 전통적인 카톨릭 국가로서 크리스마스, 부활절 등의 종교적 명절을 전후한 기간이 특수 시즌이다. 입학 시즌은 9월이며, 이외에 학기가 시작하는 3월과 9월에 학용품 등의 수요가 많다.

한국 상품 이미지

오스트리아 시장 진출에 성공한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의 결과, 오스트리아 시장에서 한국 기업 및 관련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TV, 라디오 등의 방송 매체와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한국 제품의 광고를 어렵지 않게 접

할 수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후원하는 각종 스포츠 행사 또한 시청자들에게 한국 기업 및 제품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자동차 부문의 현대, 기아, 전기/전자/IT 부문의 삼성, LG 등 한국 브랜드의 인지도 및 소비자 신뢰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정보(참고정보-시장특성)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상담 작전

가격 문제는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하니 언제나 약간의 여지를 두고 협상을 시작한다. 그러나 터무니 없이 많이 깎아 주면 오히려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국제 경쟁 가격을 고려하여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가끔 30일 이내에 결재할 경우 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비하여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2) 지불 조건

오스트리아와 처음으로 거래하는 경우, 통상적인 안전 장치로서 신용장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높은 은행 수수료 때문에 대체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 보통의 경우 T/T 방식이 일반적이므로 현지 여건에 맞게 거래 조건에 있어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3) 장기적 안목의 접근 필요

오스트리아 기업들의 속성상 한 두 번의 거래를 위해 생산업체를 물색하는 경우는 드물며, 지속적인 거래 관계 유지가 가능한 생산 업체와의 접촉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단은 소량 주문을 통해 제품의 시장성 테스트, 생산 업체의 약속 이행 여부, 품질 준수 여부 등 거래의 기본 요소들을 점검한 후 신뢰가 쌓이면 주문량을 늘리는 관행을 보인다. 따라서 초기 단계의 소량 주문에 탄력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단 신뢰가 구축되고 나면 장기적인 비즈니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초기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한국 업체들이 접촉 방법의 미숙으로 거래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은데, 바이어 입장을 고려한 접촉 방법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바이어에게 제품 검토를 요청할 경우, 회사 소개서, 제품 카탈로그, 각종 거래 조건, 제품 설명서, 샘플 등 제품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발송한 후, 거래 희망 여부를 팩스, 전화, e-메일 등으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오래된 기업의 경우 아직 e-메일을 사용하지 않거나 꺼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회사 로고가 명기된 팩스를 더 신뢰하고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바이어가 선호하는 통신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스트리아 업체들은 한국 업체가 보낸 서류에 대한 검토도 자신들의 업무 계획에 맞춰 검토 하기 때문에 독촉할 경우 오히려 반감을 살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는 구매 부서가 별도의 회사로 분리되어 구매 본부의 형태로 존재 하는 경우가 많고 구매 본부의 본연의 업무인 제품 소싱이 연중 계획 하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회신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지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독촉할 경우, 오히려 반감을 낳아 거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담당자를 알게 되면 관련 자료를 송부한 후 회신이 없더라도 좀 더 기다리거나 우호적인 안부 편지를 규칙적으로 보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유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수년 전에 무역관이 제공했던 특정 국내 업체의 카탈로그를 내내 보관하고 있다가 구매 수요가 생기자 뒤늦게 비로소 해당 업체에 직접 연락을 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꾸준하고 인내하는 장기적인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4) 언어

오스트리아는 독일어 권이기 때문에 제품의 설명서나 홍보 자료 등은 기본적으로 독일어로 갖추어야만 소비자들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 한국 상품들은 대부분 영어로만 설명서나 광고 문안이 작성되어 있어서 진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비재의 경우, 유럽산 제품들은 제품 설명서나 홍보 자료를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등 적어도 4개 국어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현지 진출을 원하는 한국 회사들도 이를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수출 대상 지역별로 대상 언어로 작성된 설명서를 첨가하는 것이 아니

라 한 설명서나 홍보 자료에 4개 국어가 동시에 표기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지식재산권 보호

오스트리아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철저하며 대부분의 국제 협약에 가입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모조 상표나 특허권 침해 등 부정 경쟁은 엄정한 단속대상인 만큼 이에 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비즈니스 에티켓

처음 만나는 경우 자신을 먼저 소개할 필요가 있다. 악수하는 것은 인사 예절로 정착되어 있으므로 만날 때와 헤어질 때 반드시 악수를 청하는 것이 예의이다. 여성 존중 예절이 정착되어 있으므로 어떤 장소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는 언제나 여성에게 우선권이 있다. 악수를 할 때에도 여성과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흔히 영화에서 동양인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장면을 많이 보아 왔기 때문에 동양인과 만났을 때 은근히 그런 인사를 기대하고 있다. 동양식으로 악수하면서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는 인사법은 오스트리아인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Aperitif(식사 전 식욕을 돋구기 위해 마시는 술)를 마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식사 대접을 하는 경우에 Aperitif를 권해 보는 것이 좋다. 후식을 먹는 것도 일상화되어 있으므로 식사 후 커피를 시키기 전에 후식을 권해보는 것도 예의에 속한다.

2) 접촉 시 유의사항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오스트리아 측의 문의에 대하여 가부간의 정확한 답변을 신속히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신뢰를 구축하는 길이다. 거래 타진의 경우 한국 측에서 거부 의사가 있는 경우 정확한 답변을 기피하여 빈축을 사는 경우가 많다. 대만이나 홍콩 등의 경쟁국에서는 신속하게 정확한 가부 의사를 전달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관공서 직원들은 외국인 육체 근로자들에 대해 고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 관공서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넥타이와 정장을 갖추어, 외국인 노동자로 오인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3) 상담 요령

상술한 대화 요령을 바탕으로 일단은 Small Talk를 진행한 뒤 시작하며, 가격 문제는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하니 언제나 약간의 여분을 두고 협상을 시작하되 터무니 없이 많이 깎아주면 의심을 하게 되므로 가능하면 현지 경쟁 가격을 고려하여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먼저 거래 가격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기존의 거래 가격 선에서 상담을 시작하여 기존의 거래 가격보다 약간 저렴하게 최종 offer를 하게 되면 가격 면에서는 만족하게 된다.

대부분이 동양인에 대해서 '사귀기 힘들지만 일단 사귀고 나면 의리가 강한 사람들'이라는 막연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기 위해 일부러 인사도 동양식으로 차려 자세로 머리를 굽혀 하는 등 동양적 냄새를 풍기는 것도 신뢰감을 일으키는 한 방법이다. 또한 오스트리아인들은 게르만 민족 중에 북부 독일인과 비교하여 인정이 많은 편이므로 이런 점을 고려하여 상담 작전을 짜는 것이 좋다.

4) 문화적 금기사항

○ 식탁에서의 금기

소리를 내서 음식을 먹거나 입을 벌리고 음식물을 씹는 것은 예의에 크게 벗어난 행동이며 수프나 국물, 국수를 후루룩 소리 내어 먹는 것은 절대 금기이다. 오스트리아 예절에는 식탁에서 트림을 하는 것도 절대적인 금기사항이므로, 식후에 트림이 나오는 경우 손으로 입을 막고 될 수 있는 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며, 곧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좋다. 또한 오스트리아 인들은 입에서 마늘냄새가 나는 것을 매우 싫어하므로 상담 전에 식사를 한 경우에는 양치질을 하고 상담에 응하는 것이 좋다.

◦ 흡연 시 예절

미국에 비하면 흡연에 대해 관대한 편이지만 흡연을 원할 경우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식사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예의이므로 반드시 상대방이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음주 관련 예절

일반 식당이나 술집에서는 포도주, 위스키, 맥주 등을 잔으로 팔고 있으나, 식사 대접을 할 경우 포도주는 병으로 시키는 것이 예의이다. 식사 때나 술자리에서나 각자 주량에 따라 자신의 술만을 주문하거나 스스로 따라 마시는 것이 습관이므로, 상대방의 잔이 빈 경우 가볍게 한번 정도 권하는 정도로 족하다. 절대로 술을 강권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잔이 빈 경우에는 상대방에 구매받지 않고 술을 주문하거나 따라 마셔도 상관없다. 대부분 포도주나 맥주를 즐겨 마시며 위스키나 꼬냑 또는 브랜디 등 독주는 식후 소화를 위해 한잔 정도 마시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식사에 곁들이는 반주는 포도주나 맥주 정도로만 하는 것이 좋다.

◦ 외국인으로서 반드시 피해야 할 담화 주제

19세기 말 프로이센과 전쟁에 패배하여 독일 지배권을 상실한 사건을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으며 독일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반면 오스트리아는 1차 세계대전 후 소국으로 전락한 데 대해 약간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므로 독일에 대한 지나친 칭찬은 금하는 것이 좋다. 같은 소국이면서 독일어 문화권인 스위스에 대해서는 경쟁 심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스위스에 대한 지나친 칭찬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국민의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이며 영미권의 개신교에 대해서는 유사 종교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으므로 한국에 많이 퍼져 있는 개신교 관련 주제는 피하는 것이 좋다. 종교를 물어올 경우 가톨릭이 아닌 여타 기독교 신자라면 간단히 개신교 신자라고만 밝히고 주제를 바꾸는 것이 좋다. 무교라고 하면 공산주의적 무신론자를 연상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종교를 물으면 가급적 일정한 종교를 말해주는 것이 좋다. 잠재적인 종교적 갈등이 존재하는 유태교 및 유태인들에 대한 논의도 피하는 것이 좋다.

한편 불교, 유교, 도교 등 동양 종교를 믿는다면 그대로 밝히면서 다소 설명을 곁들여도 좋다. 동양 종교라면 다른 문화권 지역의 종교로서 인정해 주면서 호기심을 갖는 반면 그리스도교는 자신들의 종교라는 문화적 우월감과 선입감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참고정보-비즈니스 에티켓)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무역사절단 사업 참가를 통한 현지 유력 업체와 거래 성사

N社は 스마트 재활훈련 기기 및 솔루션을 제작 공급하는 업체로 해외시장 발굴 및 확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중, 2017년 4월 용인 IT 전문사절단 사업에 참가하게 되었고 결국 이것이 오스트리아 시장에 진출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오스트리아 재활 병원 및 의료기기 유통 에이전트와 4-5회 상담 끝에, 오스트리아 주요 중대형 병원 20여 곳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력 에이전트 D社가 N社の 스마트 글러브 제품에 관심을 보였다. 최초 미팅에서 제품의 획기적인 IT 부가 기능보다 글러브의 속도 가능성 등 환자 필요 중심의 인과이어리를 제기하면서 제품 본격 도입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였던 D社は 수차례 미팅과 병원 현장 제품 시연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자, 뮌헨 소재의 N社 지사와 제품 도입 MOU를 체결한 끝에 마침내 2017년 8월 30일 1만 5100유로 상당의 최초 성약을 이루었다.

오스트리아 유력 에이전트와의 성약으로 자신감을 얻은 N社は 이후 동유럽 의료기기 사절단 등 유럽 지역 KOTRA 사업에 꾸준히 참가하며, 2017년 전년 대비 10배 규모인 400만 달러 수출 실적 달성에 성공하면서(이 중 유럽 수출이 150만 달러) 유럽을 주요 타깃 시장 삼아 성장하는 수출기업으로 변모하는 데 성공했다.

2) 지사화 서비스 가입을 통한 맞춤형 진출 전략 수립 및 추진

D社は 안드로이드 기반의 자동차용 태블릿 PC 및 이와 관련한 솔루션을 제작 공급하는 업체로, 이를 이용하여 차량 내 각종 IoT 단말기 및 장비 제어, 특히 최근의 핫한 트렌드인 카쉐어링용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다. 택시, 화물차, 용달차, Van, 특수차량용 통신형 차량용 안드로이드 단말기와, 트랙터, 농기구, 운반기구, 산업장비, 골프용 카트용 산업 장비용 안드로이드 기반 디바이스 등 두 개의 모델을 시장에 선보이고 있는데, 한국 카쉐어링용 단말기 부문에서 시장 선두업체로 인정받고 있다.

D社は 한국에서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유럽 시장 진출을 추진하여 오다가 2017년 빈 무역관 지사화 서비스 가입을 통해 진출 전략을 구체화 본격화하기 시작했는데, 보유하고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진출 시장별, 현지 파트너별 맞춤형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11월부터 빈시의 새로운 카쉐어링 사업자로 선정된 'STADTAUTO'의 운영 업체인 Greenmove에 초기 물량 15대를 공급하는 데 성공했다.

3) 지사화 서비스 가입을 통한 현지 시장 진출 효율 최적화

P社は 산업용 스위치를 전문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업체로, 국내 대기업에의 안정된 납품 실적 및 경험을 바탕으로 전기/전자 산업 분야뿐 아니라 최근에는 자동차 산업 분야까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오스트리아 M社와는 첫 만남 이후 지속적인 제품 공동 개발 노력 끝에 마침내 차량용 사이드미러용 센서를 납품하기에 이르렀으며, 최근 3년간 납품 규모가 150만 유로 → 300만 유로 → 500만 유로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안정적 수출 기반 구축에는 빈 무역관 지사화 서비스 가입을 통한 무역관의 지원이 큰 역할을 하였는데, 유럽 시장 진출이 처음인 P社 입장에서 현지 시장 정보 및 바이어 성향 파악, 수출입 실무 및 현지 출장 시 다각적인 지원 등이 오스트리아 M社와의 신뢰 관계 구축 및 확대에 큰 도움이 되었다.

4) 현지 시장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형 진출 전략 수립이 성공 비결

S社は 차량용 배터리를 전문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업체로, 현재 오스트리아 시장에 연간 약 1천만 유로어치의 관련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동사의 성공 요인을 간단히 요약하면, 오스트리아 현지 생산 대비 20~30%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약 1년간에 걸친 제품 테스트 끝에 유럽 제품에 뒤지지 않는 성능을 입증하는 데 성공한 것이 가장 큰 성공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차량용 배터리 시장은 제품의 인지도가 구매의사 결정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TOP 3 브랜드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여건에 맞춰 자사 브랜드를 고집하고 않고, 현지 시장 선두업체의 OEM 방식 납품을 통해 시장 진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

자동차 관련 부품의 경우, 실제 납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수많은 테스트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S社の 경우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 진출 실패에 따른 리스크를 어느 정도 사전에 감안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것도 성공 요인 중의 하나이다. 전술적으로는 현지 시장 인지도가 거의 없었던 S社の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관련 업체들과의 초기 네트워킹 형성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었는데, 이를 위해 세계 각지에서 개최되는 관련 제품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가 또는 참관한 것이 큰 효과를 보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 과정에서 국내 현대차 등에 납품한 레퍼런스가 첫 미팅에서 만난 현지 업체에게 제품의 우수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쉽게 인지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국가정보(참고정보-현지 진출 성공사례)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4.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한-오스트리아 간에 체결된 사증변제협정에 의해 관광객(90일 이내 체류)은 비자가 면제된다. 장기 체류(취업 및 유학)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제3국 또는 오스트리아에서 비자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 주의할 점

유럽연합(EU) 쉥겐(Schengen) 조약에 가입한 회원 국가를 통해 입국한 경우에는 그 국가에 입국한 날짜를 기준으로 90일간이 비자 면제 기간이다. 부연하자면 쉥겐 조약 가입국인 프랑스에 1월 1일에 입국해서 1월 31일까지 체류하고 2월 1일 오스트리아로 왔다 하더라도 무비자 90일 계산의 시점은 오스트리아에 입국한 2월 1일이 아니라 프랑스에 입국한 1월 1일이다. 반대로 오스트리아에 1월 1일 입국해서 60일간 머물다가 프랑스에 갔다 하더라도 프랑스에 무비자로 머물 수 있는 기간은 30일 밖에 되지 않는다. 바꿔 말해서 쉥겐 조약 가입국 전체에 무비자 90일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이다.

- 쉥겐 조약 가입국: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체코,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말타,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일단 무비자로 입국한 후 사정에 의해 장기 체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체류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비자 연장은 이미 허가된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늦어도 비자 만료 4주 전에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관례로 돼 있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1) 면세품 한도

- 술(만 17세 이상)
 - 알코올 22도 이하 2리터 또는 22도 이상 1리터 또는 샴페인 2리터
 - 일반 포도주 4리터(별도)
 - 맥주 16리터
- 담배(만 17세 이상)
 - 궤련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비 또는 엽권련 100개비 또는 엽초 250g
- 향수
 - 향수 50g
 - 화장수 0.25리터
- 그 외 품목
 - 1인당 430유로(항공 여행시), 300유로(육로 여행시)
 - 1인당 150유로(15세 미만)

- 외국환 신고: 1만 유로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환

2) 반입 불허 품목

- 총기, 약품, 전쟁용구, 포장된 물품
- 오스트리아 및 EU 회원국이 위생상 사유로 반입 금지한 동물성 식품(가공식품 포함), 식물(포도나무, 감귤나무, 분재 등). 멸종 위기에 있는 야생 동물 및 식물, 동물성 제품 포함

3) 기타 유의사항

- 애완동물(개, 고양이)
 - 애완동물 증명서, 등록증, 광견병 예방접종카드, 지정된 검사실에서 받은 피검사 결과(애완견은 피검사 3개월 후 입국 가능)
 - 1인당 5마리까지 허용
 - 여행자 본인의 소유물 외의 것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입국 안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

전화번호	+43-1-478 1991
주소	Gregor Mendel Strasse 25, 1180 Wien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at-ko/index.do

○ 오스트리아 한인회

전화번호	+43-1-263 1198
주소	Arbeiterstrandbadstrasse 122, Pavillon am Irissee, 1220 Wien
홈페이지	http://www.korean.at/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총리실(Kanzleramt)

전화번호	+43-800 222 666
주소	Ballhausplatz 2, 1010 Wien
홈페이지	https://www.bundeskanzleramt.gv.at/

○ 디지털/경제부(Ministry of Digital and Businesslocation)

전화번호	+43-1-71100-0
주소	Stubenring 1, 1010 Wien
홈페이지	https://www.bmdw.gv.at/

○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전화번호	+43-50-233 765
주소	Johannesgasse 5, 1010 Wien
홈페이지	https://www.bmf.gv.at/

○ 연방 상공회의소(Wirtschaftskammer Österreich)

전화번호	+43-5-90 900-3175
주소	Wiedner Hauptstraße 63, 1045 Wien
홈페이지	https://www.wko.at/

○ 연방 투자유치청(Austria Business Agency)

전화번호	+43-1-588 58-0
주소	Opernring 3, 1010 Wien
홈페이지	https://investinaustria.at/en/

○ 오스트리아 연합통신(A.P.A)

전화번호	+43-1-36060
주소	Laimgrubengasse 10, 1060 Wien
홈페이지	http://www.apa.at/Site/index.de.html

○ 디 프레세(Die Presse)

전화번호	+43-1-51414-0
주소	Hainburger Straße 33, 1030 Wien
홈페이지	https://diepresse.com/home/index.do
비고	보수계 일간지 중 가장 권위 있는 신문



국가정보(참고정보-유관기관)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6.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0.88유로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4.21
2	식품	비빔밥	1인분	14.69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15.79
4	식품	신라면	1봉지	1.01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4.08
6	음료	생수 (마트, 최저가)	500ml	0.56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500ml	1.31
8	의료	항생제	12정	14.04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2.73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2.73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4.43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28.4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1.37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1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13.63
16	여가	담배 (말보로라이트)	1갑	6.18
17	여가	소주 (한식당내 판매최저가)	360ml	17.04
18	임금	최저임금	법정최저	11.46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연간	23482.9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0

〈자료원 : KOTRA 빈 무역관〉



국가정보(참고정보-물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원래 화폐 단위는 실링(Schilling)이었으나 유럽 화폐 동맹(EMU) 참가국으로서 2002년 1월 1일부터 유로화가 공식 통화이다. 유럽 화폐 동맹 참가국으로서 2002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Euro화와 실링이 같이 통용됐다. 약자는 Euro, 독일어 발음은 유로가 아니라 '오이로'이다. 1Euro는 100 Cent(센트)에 해당한다.

- 주화 종류 : 1, 2, 5, 10, 20, 50 Cent, 1, 2 Euro
- 지폐 종류 : 5, 10, 20, 50, 100, 200, 500 Euro

환전방법

외환 소유 및 환전 액수에 전혀 제한이 없다. 시내 은행에서 제3국 지폐를 환전하면 환전 금액의 1.5~3.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환전소 또는 호텔에서는 대개 5~7%의 환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 지폐가 환전 가능한데, 한국 지폐는 Die Erste Bank 은행의 본점에서만 환전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율을 매우 불리하게 적용하므로, 한국 지폐는 가능하면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환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용카드 이용

현지의 지불 관행상 신용카드 사용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 아니다. 관광지 및 대형 상점, 대형 식당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 상점이나 중소 규모 식당 등에서는 신용카드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가 더 흔하다. 일반적으로 현금 사용이 선호되는 편이며, 현금이 아닌 경우 신용카드보다는 현지 은행의 직불카드(Bankomat 카드) 사용이 일반적이므로, 현지 상점 또는 식당 이용시 사전에 반드시 신용카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나. 교통

교통상황

오스트리아는 교통 관련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추어진 국가로, 특히 수도 비엔나의 경우 버스, 트램, 지하철 등으로 이루어진 대중교통망이 매우 발달돼 있어 대중교통만을 이용해도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 출퇴근 시간대에 해당하는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의 시간대를 제외하면 도로 정체가 심하거나 대중교통 수단이 인파로 가득찬 모습을 보는 것이 흔치 않을 정도로 시내 교통 상황은 매우 좋은 상황이다.

버스

1) 대중 교통 수단

각 지역마다 시내 공공 교통망이 잘 발달돼 있고 인구가 많지 않아서 트램(전차), 지하철, 버스 등 대중 교통 수단이 러시아워에도 그리 붐비지는 않는다.

- 비엔나 버스 노선도 : <https://www.stadt-wien.at/wien/oeffentl-verkehrsmittel/busfahrplan.html>

2) 대중 교통 수단 승차권 사용 방법

개찰기계(버스, 트램의 경우 자동차 내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 탑승의 경우 지하철역 개찰구에 설치돼 있음)에 승차권을 삽입하면 승차권에 탑승 시간과 탑승 노선이 기재되는데 개찰은 한 번만 하면 된다. 1회용 승차권은 편도용이지만 동 승차권으로 목적지에 당도할 때까지 트램(전차), 지하철, 버스 등 모든 대중 교통수단을 여러 번 바꿔 탈 수 있다.

단, 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는 새로운 표로 다시 개찰해야 한다. 가끔 검표원이 탑승해 승차권의 개찰 여부를 조사하며 무임승차 또는 개찰하지 않은 것이 적발된 경우 105유로(지로용지로 2주 내 납부 시 115유로)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3) 대중 교통 수단 승차권 구입 방법(2018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요금 적용)

트램, 지하철, 버스 등 대중 교통 수단은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독점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철역이나 Tabak이라고 쓴 상점에서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다. 동 승차권은 구입한 도시 내에서만 유효하다. 1회용 승차권은 비엔나의 경우 전차, 버스 안에서도 동전 자동판매기를 통해 구입이 가능하나 판매소에서 구입한 경우(2.4유로)보다 비싼 2.6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이외에 24시간용(8.0유로), 48시간용(14.1유로), 72시간용(17.1유로), 8일권(40.8유로), 1주일권(17.1유로), 1개월권(51.0유로) 등이 있는데, 가격 및 효용 면에서 1회용 승차권은 여타 승차권에 비해 가장 불리한 만큼, 여행 기간에 따라 적절한 승차권이 구입이 요구된다.

택시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이나 요금이 비싼 편이다. 한국과는 달리 거리에 다니는 빈 택시를 잡기는 어려우므로, 택시 회사에 전화하거나 대로 주변에 있는 택시 전문 정차장(Taxi-Stand)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편이 좋다.

- 대표적 비엔나 택시 회사 전화번호 : 40100, 601600, 313000, 1715, 814000

주소는 도로를 따라 순번 체계로 나열돼 있으며, 도시별로 지도가 잘 작성돼 있으므로 택시 기사에게 정확한 주소만 알려 주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다. 택시 기본 요금은 3.90유로(06:00-23:00, 야간에는 4.30유로)이며, 빈 시내에서 이용시 보통 10~20유로 정도의 요금이 나온다. 전화로 택시를 부른 경우, 10Kg 이상의 짐이 있는 경우, 그리고 22시 이후에 탑승한 경우에는 택시 요금에 2.80유로의 할증료가 추가된다.

지하철/트램

비엔나를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 또는 출장자의 경우, 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지하철이나 트램을 이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목적지를 찾아가는 데 더욱 편하다. 각각의 노선도는 다음과 같다.

◦ 트램 노선도 : <https://www.stadt-wien.at/wien/oeffentl-verkehrsmittel/strassenbahnen-in-wien-fahrplaene-aller-linien.html>

◦ 지하철 노선도 : <https://www.stadt-wien.at/wien/oeffentl-verkehrsmittel/u-bahn-wien-u-bahn-plan-fuer-alle-linien.html>

다. 통신

핸드폰

이동통신 사업자 중 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집 근처 가까운 대리점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여권), 거주등록증(Meldezettel) 등이다. 통신업체에 가입 후 정기 사용료(후불)를 지불하거나 선불 충전카드(USIM)를 사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선불 충전카드의 경우 가입이 필요없고, 상점에서 USIM 카드 구입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후불방식보다는 분당 통화요금이 다소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정기사용료 지불 방식의 경우 통화시간, SMS 갯수, 인터넷 데이터 용량 등에 따라 다양한 요금제가 존재하는데

, 보통 월 20~40유로 정도이다. 오스트리아의 주요 이동통신업체로는 A1, T-Mobile, Drei(3) 등이 있다.

- Telekom Austria : www.a1.net
- T-Mobile : www.t-mobile.at
- Drei(3) : www.drei.at

인터넷(와이파이)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오스트리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유선통신 또는 케이블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무선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Router)가 그것이다. 유선 또는 케이블 사업자 제공 서비스의 경우 신청에서 설치까지 약 1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단점이 있는 반면, 무선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빨리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에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2년 정도의 의무가입 기간이 약정에 포함되어 있어 초기에 약정을 해 지할 경우 위약금 등의 규정이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이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유선 또는 케이블 사업자
 - Telekom Austria : www.a1.net
 - UPC Telekabel : www.upc.at
- 무선통신 사업자
 - T-Mobile : www.t-mobile.at
 - Drei(3) : www.drei.at

라. 관광명소

◦ 슈테판 대성당(Stephansdom)

도시명	비엔나
주소	Stephansplatz 3, 1010 Wien
운영시간	월~토 : 오전 6시~오후 10시 일, 공휴일 : 오전 7시~오후 10시
휴무일	연중 무휴
명소소개	오스트리아 최고의 고딕 양식 건축물로 '빈의 상징', '빈의 혼'으로 불린다.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137m의 첨탑이 솟아있고, 사원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안톤 필그림이 조각한 국보급의 설교단, 그 오른쪽 뒤에는 프리드리히 3세의 무덤이 있다. 북탑 입구 옆에 있는 지하 묘지 카타콤베에는 오스트리아 역대 황제의 화장한 유골과 내장이 분리되어 수납된 향아리와 흑사병으로 죽은 2,000여 구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다.
비고	전화 : +43-1-51552 3767 홈페이지 : http://www.stephanskirche.at/

◦ 쉐nbrun 궁전(Schoenbrunn Palace)

도시명	비엔나
주소	Schnbrunner Schloßstraße 47, 1130 Wien

운영시간	4.1~6.30 : 오전 8시~오후 5시 30분 7.1~8.31 : 오전 8시~오후 6시 30분 9.1~10.31 : 오전 8시~오후 5시 30분 11.1~3.31 : 오전 8시~오후 5시
휴무일	연중 무휴
명소소개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 궁전이다. 마리아 테레지아 여황제의 명으로 1744~1749년에 건축되었으며, 현관 건물, 중앙 건물, 글로리에떼(대 프러시아 전쟁 승리 기념탑), 아름다운 정원과 숲(총 18km)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궁전 내에는 로코코 양식으로 장식된 1,441개의 방이 있는데, 41개만이 일반 공개되고 있다. '백만금의 방'은 붉은 장미 목재와 금세공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대무도 회장'은 국빈 접대시 사용한다. '거울의 방'은 모차르트가 6세 때 마리아 테레지아 여황제 앞에서 연주하였던 곳으로 유명하며, 후에 모차르트가 마리 앙투아네트 공주에게 청혼한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비고	전화 : +43-1-811 13-0 홈페이지 : https://www.schoenbrunn.at/

○ 벨베데레 궁전(Belvedere Palace)

도시명	비엔나
주소	Prinz Eugen-Strasse 27, 1030 Wien
운영시간	월~목, 주말, 공휴일 : 오전 9시~오후 6시 금요일 : 오전 9시~오후 9시
휴무일	연중 무휴
명소소개	오스만 터키와의 전쟁에서 빈을 구한 영웅, 오이겐 왕공의 여름 별궁이다. 上宮(Oberes Belvedere)과 下宮(Unteres Belvedere)으로 나뉘어 있고, 그 사이에는 분수와 바로크 풍의 정원이 펼쳐져 있다. 상궁은 현대 미술관으로, 하궁은 고대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이겐공이 죽은 후 이 궁전은 합스부르크가의 소유가 되었으며 사라예보에서 암살 당함으로써 제1차 세계 대전의 빌미가 된 페르디난드 황태자가 거주했다.
비고	전화: +43-1-795 57-0 홈페이지 : https://www.belvedere.at/

○ 국립 오페라 극장(National Operahouse)

도시명	비엔나
주소	Opernring 2, 1010 Wien
운영시간	가이드 투어 : 월~일(사전 체크 필요) https://www.wiener-staatsoper.at/ihr-besuch/fuehrungen/
휴무일	7, 8월 휴관
명소소개	1869년 궁정 오페라극장으로 세워진 르네상스 양식 의 건축물로 내부는 로코코 양식이다. 파리, 밀라노 극장과 더불어 유럽 3대 오페라극장으로 꼽히고 있는 데 이 중에서 가장 공연일수가 많다(7, 8월 휴관).
비고	전화 : +43-1-514 44-2250 홈페이지 : https://www.wiener-staatsoper.at/

◦ 왕궁(Hofburg)

도시명	비엔나
주소	Michaelerkuppel, 1010 Wien
운영시간	9.1~6.30 :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7.1~8.31 : 오전 9시~오후 6시
휴무일	연중 무휴
명소소개	합스부르크 왕가의 궁성은 16~18세기에 세워진 Alteburg와 19~20세기에 세워진 Neuburg로 이루어져 있는데 Alteburg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다. Neueburg(새 왕궁)에는 민속박물관 및 왕가의 무기와 악성들의 피아노를 전시한 박물관이 있다. 또한 왕 궁에서는 스페인 식 승마 학교, 주일 미사 때마다 빈 소년 합창단이 성가를 부르는 왕궁 예배당, 신성 로마 제국의 보물을 전시하고 있는 보석 박물관(Schatz kammer)도 볼 수 있다(월요일 휴관).
비고	전화 : +43-1-533 7570 홈페이지 : https://www.hofburg-wien.at/

〈자료원 : KOTRA 빈 무역관〉

마. 식당

- 현지식당

◦ 피아리스텐 켈러(Piaristenkeller)

도시명	비엔나
전화번호	+43-1-406 0193
주소	Piaristengasse 45, 1080 Wien
가격	15~30유로
영업시간	오후 6시~오후 12시(일요일 휴무)
휴무일	일요일
소개	중세풍의 고급식당으로 옛날 와인 저장소를 개조하여 식당으로 만든 곳이다. 오후 7시 반부터 오스트리아 전통 악기인 시터(Citer, 하프와 기타의 중간 형태 악기) 연주가 있어서 매우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비고	가격대는 1인 기준(부가세 포함). 팁은 통상 음식가격의 5~10%

◦ 그리헨 바이즐(Griechenbeisl)

도시명	비엔나
전화번호	+43-1-533 1977
주소	Fleischmarkt 11, 1010 Wien
가격	13~25유로

영업시간	오전 11시 30분~오후 11시 30분
휴무일	연중 무휴
소개	비엔나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으로, 5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 유명인들이 식사하고 벽에 사인한 방이 있다.
비고	가격대는 1인 기준(부가세 포함). 팁은 통상 음식가격의 5~10%

◦ 슈타이러 에크(Steirereck)

도시명	비엔나
전화번호	+43-1-713 3168
주소	Am Heumarkt 2A, 1030 Wien
가격	30~60유로
영업시간	오전 8시~오후 11시 (토: 오전 9시~오후 7시, 일: 휴무)
휴무일	일요일 휴무
소개	귀족적 분위기의 고급 식당으로, 각종 오스트리아 전통 음식을 즐길 수 있다.
비고	가격대는 1인 기준(부가세 포함). 팁은 통상 음식가격의 5~10%

◦ 플라후타(Plachutta)

도시명	비엔나
전화번호	+43-1-512 1577
주소	Wollzeile 38, 1010 Wien
가격	18~30유로
영업시간	오전 11시 30분~오후 12시
휴무일	연중 무휴
소개	오스트리아 전통 쇠고기 요리 전문점으로, 대표 메뉴는 타펠슈피츠(Tafelspitz)이다. 양질의 소고기를 계약 목축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정치인들이 애용하는 식당이다.
비고	가격대는 1인 기준(부가세 포함). 팁은 통상 음식가격의 5~10%

◦ 휘그물러(FIGLMÜLLER)

도시명	비엔나
전화번호	+43-1-512 6177
주소	Wollzeile 5, 1010 Wien
가격	18~25유로

영업시간	오전 11시 30분~오후 11시 30분
휴무일	연중 무휴
소개	오스트리아 대표 전통 음식인 슈니첼(Schnitzel) 전문 식당이다.
비고	가격대는 1인 기준(부가세 포함). 팁은 통상 음식가격의 5~10%

〈자료원 : KOTRA 빈 무역관〉

- 한국식당

○ 요리(Yori)

도시명	비엔나
전화번호	+43-57-333 777
주소	Wiesingerstrasse 8, 1010 Wien
가격	17~21유로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4시 오후 6시~오후 11시
휴무일	연중 무휴
소개	다양한 한식 메뉴를 갖춘 고급 한식당으로, 손님 접대용으로 좋다. 찌개류, 밥, 볶음, 고기 등.

○ 수라(Sura)

도시명	비엔나
전화번호	+43-1-512 8426
주소	Singerstrasse 13, 1010 Wien
가격	17~21유로
영업시간	오전 11시 30분~오후 11시
휴무일	연중 무휴
소개	다양한 한식 메뉴를 갖춘 고급 한식당으로, 손님 접대용으로 좋다. 수라상 세트(2인 기준 65달러), 감자탕 등이 특색 메뉴

○ 김치(Das Kinchi)

도시명	비엔나
전화번호	+43-1-713 3734
주소	Marxergasse 15, 1030 Wien
가격	16~20유로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3시 오후 6시~오후 11시
휴무일	연중 무휴
소개	다양한 한식 메뉴를 갖춘 고급 한식당으로, 손님 접대용으로 좋다. 찌개류, 밥, 볶음, 고기 등.

◦ 유식당(Yoo)

도시명	비엔나
전화번호	+43-1-597 2876
주소	Stumpfergasse 27, 1060 Wien
가격	14~19유로
영업시간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30분 오후 6시~오후 10시 30분
휴무일	일요일 휴무
소개	다양한 한식 메뉴를 갖춘 한식당으로, 가장 한국적인 맛을 지닌 식당으로 평가된다. 음식 이외에 더불어 나오는 반찬의 종류와 맛이 뛰어나다.

◦ 한일관(Hanil)

도시명	비엔나
전화번호	+43-1-587 7941
주소	Gumpendorferstrasse 14, 1060 Wien
가격	14~19유로
영업시간	오전 12시~오후 2시 30분 오후 6시~오후 10시
휴무일	일요일 휴무
소개	다양한 한식 메뉴를 갖춘 한식당으로, 특히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식당으로 유명하다.

〈자료원 : KOTRA 빈 무역관〉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호텔 아나나스(Hotel Ananas)

도시명	비엔나
주소	Rechte Wienzeile 93-95, 1050 Wien

전화번호	+43-1-54620
홈페이지	https://www.austria-trend.at/de/hotels/ananas?usercampagne=addirekt&gclid=Cj0KCQiA_s7fBRDrARIsAGEvF8TwPKvEm1CiCWU-MneYBS7I7WMvNv_Q2go8sjNAvZFUwRUUs06gUNvoaAvQ5EALw_wcB
숙박료	120~140유로(클래식 룸, 조식 불포함)
소개	비즈니스맨들에게 적합한 호텔로, 내부시설도 제법 깨끗하고 위치도 빈 시내 중심지에 있다.

○ 호텔 아나톨(Hotel Anatol)

도시명	비엔나
주소	Webgasse 26, 1060 Wien
전화번호	+43-1-59996
홈페이지	https://www.austria-trend.at/de/hotels/anatol?usercampagne=addirekt&gclid=Cj0KCQiA_s7fBRDrARIsAGEvF8SW3jsW1DyPDboOo3ScbQPXNhGFIU5rFhUxb6AYIkEAsltwVHJyIQWYaAia7EALw_wcB
숙박료	120~140유로(클래식 룸, 조식 불포함)
소개	비즈니스맨들에게 적합한 호텔로, 내부시설도 제법 깨끗하고 위치도 빈 시내 중심지에 있다.

○ 호텔 플레밍스(Hotel Flemings)

도시명	비엔나
주소	Neubaugürtel 26-28 - A, 1070 Wien
전화번호	+43-1-227370
홈페이지	https://www.flemings-hotels.com/hotels-residences/wien/flemings-conference-hotel-wien/hotel
숙박료	95~110유로(스탠다드 룸, 조식 불포함)
소개	비엔나 기차역(서역)에서 가까운 호텔로, 비즈니스 출장자 및 컨퍼런스용 호텔이다.

〈자료원 : KOTRA 빈 무역관〉

- 게스트하우스

○ 비엔나 스위트(Vienna Suite)

도시명	비엔나
주소	Gudrunstrasse 131/33 A-1100 Wien
전화번호	+43-676-957 8316
홈페이지	http://viennasuite.co.kr/
숙박료	80유로(1인실)

소개	시내 중심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고급 민박집.朝食 제공.
비고	카카오톡 ID : viennasuite

○ 비엔나 소미네 집(Vienna Somine)

도시명	비엔나
주소	Barnabitengasse 4, 1060 Wien
전화번호	+43-676-403 4349
홈페이지	http://www.viennasomine.com/
숙박료	110유로(2인실)
소개	비엔나 서역 및 무역관에서 가까운 민박집.朝食 제공.
비고	카카오톡 ID : viennasomine

〈자료원 : KOTRA 빈 무역관〉

사. 치안

치안상황

주야간 모두 매우 양호하다. 스위스와 더불어 서유럽 국가 중 가장 안정된 편에 속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즉 시장이나 박람회에는 간혹 동유럽이나 이탈리아에서 원정 나온 소매치기들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강력 사건의 발생 빈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최근 들어 오스트리아의 각 지역을 여행하는 한국인들의 소지품 도난 및 분실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른 국가와 연결하는 기차역 및 다른 국가로부터 오스트리아로 입국하는 기차 내부에서 도난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차 이용시 소지품 도난에 각별한 유의가 요망되며, 야간 열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혼잡한 지역(기차 및 버스역, 유명 관광지, 시내 카페테리아 등)에서 친절하게 길 또는 관광지를 설명해주는 척하면서 2인 1조의 소매치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므로, 소지품은 항상 자기 자신의 신체에 붙어있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인명피해 발생 시, 우선 구급차를 불러 부상자를 응급 구조한 후, 경찰 긴급전화로 연락해 교통 순찰차를 호출, 조서를 꾸미도록 한다. 충돌사고 및 접촉사고시에는 도로 옆 안전한 곳에 비켜 세운 후 상대방 차의 색깔, 번호, 운전자 이름, 신분증 주소 등을 확인한 후 주위에 있는 증인을 확보 후 가까운 교통경찰당국에 신고한다. 민사책임이 다르나,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처리한다.

사고를 대비해 항상 운전시에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보험가입증서, 차량정비 등록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으며, 평소 단골로 이용하는 정비공장 전화번호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상대방 차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2~3곳 정도의 견적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 및 휴대폰에 사본을 사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여권을 분실할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과 대

사관(+43-1-478 1991)으로 연락을 해야 한다. 한국 대사관에 신고를 하면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대용증명서)나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여행증명서만으로도 한국으로의 귀국이 가능하다.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대사관 방문 및 발급 신청 : 여권 재발급 사유서 또는 분실사유서 작성
- 구비서류 : 여권용 사진 2장
 - 여권의 경우, 12.50유로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2~3주 소요
 - 여행증명서의 경우, 5.81유로 납부 후 당일 혹은 1~2일 소요

3) 응급 전화번호

- 화재 신고 : 122
- 범죄 신고 : 133
- 의료 : 응급환자 144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장 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1) 집 구하기

○ 임차 방법

- 부동산 업자를 통한 계약 또는 신문광고, 인터넷 등을 통한 개별 계약 방법이 있다. 부동산업자를 통한 계약 시 주택 소개료(복비)가 월 임차료의 2~3개월에 달하는 등 별도의 부담을 해야 한다. 계약 기간에 따라 중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긴 계약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문광고나 인터넷 관련 사이트를 통해 개별적으로 임대주와 협의해 주택을 임차할 수 있으나, 한국인 취향에 맞는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임대료

-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방미터당 10~20유로 정도이다. 입주 계약시 임대 보증금으로 월 임대료의 2~3배를 지불한다. 해당 보증금은 계약 해지시 주택 손상분을 제외하고는 반납받을 수 있다.

○ 입주의 난이도

- 부동산을 통해 주택을 구할 경우 어려운 점은 없으나 소개비가 비싸며, 개인적으로 구할 경우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

○ 임차계약 해지시 빈발하는 문제

- 임대계약시 지불한 보증금(Kaution)에 대해 임대물의 손상을 이유로 전액 환불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임대계약시 계약서를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물을 입주 전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돌려줄 것을 명시하는 조항도 있음). 모든 비품 및 시설의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금(Kaution)에서 공제하게 돼 있으므로, 입주 전 가구 등 비품 목록을 작성하고 비품 및 주택 내부 상태를 계약서에 첨부하는 것이 계약 종료시 분쟁을 피할 수 있다.

- 임차계약 만기 이전에 임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통고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계약서에 준하며, 보통의 경우 3달 이전에 통보해야 함). 해약은 3개월 전에 미리 구두 및 문서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쌍방 합의가 필요하다. 문서상으로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소송이 없는 것이며, 보증금은 월세로 대체하겠다는 임차인의 의도가 있으면 이것도 문서상으로 알려야 한다.

- 오스트리아에서는 모든 계약과 해약은 문서상으로 성립돼야 법적으로 유리하다. 집 계약 이전에 집주인의 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장(Vollmachtbestaetigung) 또는 Auftragsbestaetigung 및 중개업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외국인 체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 1인당 최소한 10제곱미터가 확보돼야 한다. 예를 들어 3인 가족의 경우 최소한 30제곱미터 이상 되는 집을 얻어야 체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2) 주거등록 절차

집을 구하고 나면 가까운 구청의 주거등록과(Meldeservice im Magistratischen Bezirksamt)로 가서 주거등록을 해야 하는데, 각 구청 주거등록과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 <http://www.wien.gv.at/verwaltung/meldeservice/stellen.html>

주거등록을 위해서는 여권과 사진 2매 그리고 주거등록서식이 필요한데, 주거등록서식(Meldezettel, 멜데 켄텔)은 각 구청의 주거등록과에 비치돼 있고, 웹사이트(<http://www.wien.gv.at/verwaltung/meldeservice/meldezettel.html>)를 통해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전화

오스트리아에서 유선전화를 신청할 수 있는 곳은 크게 2곳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 최대의 통신사업자인 Telekom Austria와 최대 케이블 채널 사업자인 UPC이다. 이들 중 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집 근처 가까운 대리점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여권), 거주등록증(Meldezettel) 등이고, 통상 신청 후 설치까지 1~2주가 소요된다. 보통 유선전화와 인터넷, TV 채널 등을 결합한 패키지 상품이 일반적이고 요금도 개별적으로 설치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 Telekom Austria : www.a1.net
- UPC Telekabel : www.upc.at

전압/플러그

전압은 230V, 주파수는 50Hz이며 플러그는 중부 유럽 방식(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2구 콘센트이다. 한국의 경우 220V, 60Hz, 2구 콘센트이다. 한국에서의 주파수는 60Hz이기 때문에 50Hz/60Hz 겸용이 아닌 경우, 현지에서 사용한다면 오래 쓰지 못하고 고장이 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일반 전자제품은 사용에 큰 문제가 없으나, 전열기구나 모터를 돌리는 제품을 사용할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식수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의 경우에는 알프스 약수가 수돗물로 공급되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식수로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대부분 지역에서도 수돗물을 그대로 식수로 사용하는데, 다만 니더외스터라이히 주와 부르크렌트 주를 여행할 경우 미네랄 워터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이 곳은 알프스 지역이 아니어서 강물을 정수해 사용하는데 석회가 많이 섞여 있다.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식당(한국 식당 포함)에서 음료수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는 없으며 반드시 음료를 주문하는 것이 예의이다. 음료수 가격을 감안해 음식 값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오스트리아의 연간 자동차 신차 시장의 규모는 30만 대 수준이며, 신차의 경우 Mercedes Benz, BMW, Volkswagen, Audi, Opel 등의 대리점을 통해서만 유통되므로, 몇 군데 대리점을 접촉해 보고 가격 및 옵션을 잘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반적인 가격은 한국에서 구입할 경우보다 비싼 편이다. 특히 한국과 비교해 기본 옵션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이 무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고차 구입시에는 직거래보다는 가격이 다소 높으나 1년 또는 2년의 중고차 개런티를 부여하는 중고차 전문 매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안정 및 품질의 보장 측면에서 추천할 만한 방법이다. 중고차 매장을 직접 방문하기 이전에 www.car4you.at와 같은 중고차 거래 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차종 관련 사전 정보를 확보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타 차량과 관련한 일반 정보는 www.oeamtc.at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차량가격

오스트리아에서는 차량 구입 및 보유와 관련해 두 가지 세금(부담금)이 발생하는데, NoVA(차량 환경부담금) 및 자동차세가 그것이다. NoVA는 자동차 구입시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CO₂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며, 자동차세는 차량구입 후 보유시 5년 동안 납부하는 세금으로 차량 엔진의 출력에 따라 부과된다. 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관련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NoVA

CO₂ 배출량이 90g/km까지 0%이며, 90g/km를 초과할 경우 실제 배출량과 90과의 차이를 5로 나눈 수치가 부담해야 할 NoVA 적용률이 된다. 예를 들어, 새로 구입한 차량의 CO₂배출량이 150g/km일 경우 150과 90의 차이인 60을 5로 나눈 수치 즉 12%의 NoVA가 적용됨으로써 차량 구입가격의 12% NoVA를 차량 구입 시 납부해야 한다. NoVA의 최고 적용율은 32%이다. 즉, CO₂ 배출량이 250g/km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율의 NoVA가 적용된다.

- 자동차세
 - 엔진 출력 24KW 이하 : 0
 - 엔진 출력 24KW 초과 90KW 이하 : 0.682유로(KW, 월)
 - 엔진 출력 90KW 초과 110KW 이하 : 0.726유로(KW, 월)
 - 엔진 출력 110KW 초과 : 0.825유로(KW, 월)

운전면허 취득

1) 구분

- 한국인 여행자
 - 오스트리아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반드시 한국 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 한국인 거주자(유학생 포함)
 - 오스트리아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한국 운전면허증을 오스트리아 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한다.
 - 이 경우 1997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된 한국 운전면허증은 일정 조건을 갖추어 교환이 가능하나, 그 이전에 발급된 한국 운전면허증은 추가적으로 주행 시험을 거쳐야 한다.

2) 운전면허 교환

1997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된 한국운전면허증은 오스트리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하다.

- 소요기간 : 2주
- 수수료 : 55.70유로(면허증 발급비)
- 구비서류
 - 면허증 교환신청서(교통과에 비치)
 - 한국운전면허증 및 복사본 2부, 한국운전면허증 번역인증본 및 복사본 2부
 - 여권 및 여권 복사본 2부
 - 거주등록증(Meldezettel) 원본 및 복사본 2부
 - 오스트리아 체류증(비자) 원본 및 복사본 2부
 - 여권용 사진 1매
 - 건강진단서

1997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한국운전면허증을 오스트리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시에는 필수적으로 주행시험을 치러야 한다.

- 소요기간 : 8주
- 수수료 : 55.70유로(면허증 발급비) + 32.70유로(주행시험비)
- 구비서류
 - 면허증 교환신청서(교통과에 비치)
 - 한국운전면허증 및 복사본 2부, 한국운전면허증 번역인증본 및 복사본 2부

- 여권 및 여권 복사본 2부
- 거주등록증(Meldezettel) 원본 및 복사본 2부
- 오스트리아 체류증(비자) 원본 및 복사본 2부
- 여권용 사진 1매
- 건강진단서
- 주행시험 신청서(교통과에 비치)
- 자동차 등록증 및 복사본 2부
- 자동차 검사증 및 복사본 2부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주행시험 날짜까지는 약 8주가 소요된다. 주행시험에 합격한 후에 교통청에서 면허증을 발급받는다(소요기간 1-2일).

- 운전면허증 교환장소 : 연방경찰청 비엔나 교통국(Verkehrsamt Wien)
- 주소 : Josef-Holteubek-Platz 1, A-1090 Wien
- 근무시간 : 월-금, 8:00- 12:30
- 전화 : (01) 31345-0
- 비엔나 시를 제외한 각 주의 경찰청 교통국 주소는 하기 사이트를 참고
- <http://www.bmvit.gv.at/verkehr/strasse/fuehrerschein/sfs/behoerden/index.html>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 Bank Austria : 자산 규모면에서 오스트리아 최대의 은행으로, 과거에는 국영 은행이었으나 민영화 이후 2005년 이탈리아 금융 그룹인 UniCredit 그룹에 인수되었다. www.bankaustria.at
- Erste Bank :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신용금고(Sparkasse)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은행이다.
<https://www.sparkasse.at/erstebank/privatkunden>
- Raiffeisenbank : 오스트리아 3위의 은행으로, 2000년대 후반부터 서비스 개선 및 공격적 마케팅 등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 www.raiffeisen.at

계좌 개설방법

오스트리아에 있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여권(신분증), 거주등록증(Meldezettel) 등의 서류만 있으면 된다. 기업 계좌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등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한다.

개인 계좌의 경우, 은행수수료 납입 방법과 관련하여 몇 개의 서로 다른 상품이 존재하는데 보통 은행거래 건마다 일정액의 수수료를 차감하는 방식, 거래건수와 관계 없이 정해진 금액을 계좌수수료로 차감하는 방식 등이 있으므로, 본인의 거래 성향을 고려하여 선택하면 된다.

오스트리아의 은행들은 통상적으로 분기별(3개월)로 은행거래수수료를 부과하는데,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수료 종류 및 금액이 높은 편이다. 계좌 개설시 체크카드(Bankomat 카드)를 신청하는 것이 매우 유용한데(신용카드는 어느 정도의 거래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함), 오스트리아에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o American International School Vienna(AISV)

도시명	비엔나
커리큘럼	미국식 학제를 따르고 있으며, 영어, 수학, 외국어, 음악, 체육, 사회, 과학, 기술, 연극, 미술 등의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비	유치원~5학년 : 17,650유로 6학년~8학년 : 19,585유로 9학년~10학년 : 20,370유로 11~12학년 : 20,672유로
홈페이지	http://www.ais.at

o Vienna International School(VIS)

도시명	비엔나
커리큘럼	초등학교 과정(1학년~5학년) 및 중고등학교 과정(6학년~1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스트리아의 대입 자격능력(Matura) 취득 기회도 주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11~12학년 기간 동안 오스트리아 역사 및 지리, 독일어, 영어, 수학, 과학(생물, 화학, 물리 중 택1) 과목을 반드시 수강해야만 한다.
학비	유치원~5학년 : 17,611유로 6학년~12학년 : 20,821유로
홈페이지	http://www.vis.ac.at

o Danube International School, Vienna(Danube)

도시명	비엔나
커리큘럼	초등학교 과정(1학년~5학년) 및 중고등학교 과정(6학년~1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UN 등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녀의 경우, 등록금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학비	유치원~1학년 : 17,658유로 2학년~3학년 : 17,934유로 4학년~5학년 : 18,070유로 6학년~10학년 : 20,998유로 11학년~12학년 : 23,206유로
홈페이지	http://www.danubeschool.com

〈자료원 : KOTRA 빈 무역관〉

- 현지학교

o THERESIANISCHE AKADEMIE WIEN

도시명	비엔나
-----	-----

커리큘럼	유치원(Kindergarten, 6세 미만), 초등학교(Volksschule, 6세~9세), 중고등학교(Gymnasium, 10세~17세)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다.
학비	초등학교 : 6,580유로 중고등학교 : 6,450유로(오스트리아 및 EU 시민), 8,220유로(기타 외국인)
홈페이지	https://www.theresianum.ac.at/
비고	테레지안 사립 학교 법인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Gymnasium)를 모두 운영하고 있다. 유명한 정치인을 많이 배출한 명문 사학 재단이다.

〈자료원 : KOTRA 빈 무역관〉

마. 병원

◦ AKH(Allgemeines Krankenhaus der Stadt Wien)

도시명	비엔나
주소	Whringer Gürtel 18-20, 1090 Wien
전화번호	+43-1-40400-0
진료과목	종합병원

◦ Sozialmedizinisches Zentrum Ost - Donauspital

도시명	비엔나
주소	Langobardenstrasse 122, 1220 Wien
전화번호	+43-1-28802-0
진료과목	종합병원

◦ St. Anna Kinderspital

도시명	비엔나
주소	Kinderspitalgasse 6, 1090 Wien
전화번호	+43-1-40170-0
진료과목	소아과

〈자료원 : KOTRA 빈 무역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쇼핑 시티 쾰트(SCS : SHOPPING CITY SÜD)

주소	Vsendorfer Südring, 2334 Vsendorf
홈페이지	https://www.scs.at/
비고	수도 비엔나 남쪽 외곽에 위치한 오스트리아 최대의 쇼핑 단지로서, 식당, 영화관 등을 포함해 총 330개의 상점들이 입점해 있다. 총 면적 192,500㎡.

◦ 도나우 젠트룸(Donau Zentrum)

주소	Wagramer Str. 81, 1220 Wien
홈페이지	https://www.donauzentrum.at/
비고	수도 비엔나 북쪽에 위치한 오스트리아에서 2번째로 큰 쇼핑 단지로서, 총 260개의 상점들이 입점해 있으며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Donau Plex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총 면적 130,000㎡.

〈자료원 : KOTRA 빈 무역관〉

- 식품점

◦ 나쉬막 시장(Naschmarkt)

도시명	비엔나
주소	Naschmarkt, 1060 Wien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야채 등 각종 식료품과 특산품, 다수의 식당들
비고	외국인들에게 관광 명소의 하나로 유명한 오스트리아 전통 시장으로, 상품마다 가격표가 붙어 있어 바가지를 쓸 염려가 없다.

◦ 낙원(Nakwon)

도시명	비엔나
주소	6구 : Zieglergasse 12, 1060 Wien, 2구 : Rotensterngasse 31, 1020 Wien
취급 식료품	식생활용품(한국 식품, 아시아 식품)
비고	대형 한인 식품 매장으로 다양한 종류의 한국 식품(아시아 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수도 비엔나에 2곳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 빌라(Billa)

도시명	오스트리아 전국
주소	매장 위치 검색 : https://www.billa.at/Footer_Nav_Seiten/Filialsuche/dd_bi_channelpage.aspx
취급 식료품	식생활용품, 대형 마트
비고	Spar와 함께 오스트리아 선두를 다투는 식생활용품 매장 체인으로, 오스트리아 전역에서 쉽게 매장을 찾을 수 있다.

○ 슈파(Spar)

도시명	오스트리아 전국
주소	매장 위치 검색 : https://www.spar.at/standorte?gclid=CjwKCAiAodTfBRBEEiwAa1hauqDdfTT1uJ7YOpHd7saM0lAcV8ZDY
취급 식료품	식생활용품, 대형 마트
비고	오스트리아 토종 브랜드로, Billa와 함께 오스트리아 선두를 다투는 식생활용품 매장 체인이다.

〈자료원 : KOTRA 빈 무역관〉

- 기타 편의시설

○ 쉬센부른 골프장(Golf Club Wien-Süssenbrunn)

도시명	비엔나
주소	Weingartenallee 22, 1220 Wien
홈페이지	http://www.gcwien-sb.at/golf/gc-suessenbrunn
소개	비엔나에서 가장 가까운 지리적 잇점으로 인해, 현지 교민들이 즐겨 찾는 골프장이다.

○ 다뉴브 피트니스 센터(Clun Danube)

도시명	비엔나
주소	피트니스 센터 위치 검색 : https://www.clubdanube.at/standorte
홈페이지	https://www.clubdanube.at/
소개	센터에 따라 피트니스, 수영장, 골프장 등 다양한 스포츠 공간을 제공한다.

〈자료원 : KOTRA 빈 무역관〉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신년(Neujahr)	2019-01-01	새해 첫 날을 기념하는 날
삼성왕절(Heilige Drei Konige)	2019-01-06	동방박사 3인이 예수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아기예수를 찾아온 날
부활절(Ostersonntag)	2019-04-22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뒤 부활한 때를 기념하는 축일
노동절(Staatsfeiertag)	2019-05-01	세계 노동절
예수승천일(Christi Himmelfahrt)	2019-05-30	예수가 부활 후 승천한 날
성령강림절(Pfingstmontag)	2019-06-10	오순절 예수 승천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재했던 사건을 기념하는 날

성체축일(Fronleichnam)	2019-06-20	성체에 대한 신앙심을 고백하는 축일. 삼위일체 대축일 후의 목요일
성모승천일(Maria Himmelfahrt)	2019-08-15	사람으로 태어나 살았던 마리아가 죽은 뒤 몸이 썩어 사라지지 않고 부활해 하늘로 승천한 날
중립국선언일(Nationalfeiertag)	2019-10-26	오스트리아가 영세중립국임을 선포한 날
성자의날(Allerheiligen)	2019-11-01	모든 기독교 성자들을 기념하는 날
성모수태일(Maria Empfaengnis)	2019-12-08	성모 마리아가 대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날
성탄절(Weihnachten)	2019-12-25	예수탄생일, 크리스마스
성슈테판의 날(Stefanitag)	2019-12-26	슈테판 성자 기념일

<자료원 : <http://www.gesetzlichefeiertage.at/uebersicht/feiertage-2019.html>>



국가정보(참고정보-생활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9. KOTRA 무역관 안내

빈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 Mariahilferstrasse 77-79/1/3(Generali Center, 3rd Fl.), 1060 Wien
- 전화번호 : +43-1-586 3876
- 이메일 : kotravie@kotra.at
- 홈페이지 : <http://www.kotra.or.kr/KBC/vienna/KTMIUI010M.html>

공항-무역관 이동

- 공항 출발시
 - 셔틀버스 : Westbahnhof(서부역)행 셔틀버스를 타고(약 40분 소요) 서부역 하차. 서부역에서 지하철 3호선 Simmering 방향으로 가다가, 두 번째 Neubaugasse 역에서 하차. 지상으로 나오시면 Generali Center가 보인다.
 - 택시 : Mariahilferstrasse 77(마리아힐퍼슈트라세 77)이라고 말하면 Generali Center까지 바로 갈 수 있다.
 - 기차 : S-Bahn(교외선 기차), CAT(공항철도)가 있으나,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복잡하므로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니다.
- 건물 도착 후
 - Generali Center 안으로 들어온 후(Front Desk에 별도의 등록 절차 필요 없음), 곧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오면 우측에 KOTRA 간판을 발견할 수 있다.



국가정보(참고정보-KOTRA 무역관 안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